



2026. 9.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동향 & 이슈 | 제143호

NABO 경제동향 & 이슈

NABO Economy Trends & Issues

CONTENTS

국내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

해외경제 동향

경제이슈 분석 | AI 투자 확대와 국내 설비투자 리스크 점검
: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문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경제동향 & 이슈

총괄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기획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조정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황소정	경제분석관
작성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종률	경제분석관
	김원혁	경제분석관
	설경원	경제분석관
	황소정	경제분석관
지원	장수지	행정실무관

- 「NABO 경제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 02-6788-377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경제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NABO

Economy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26년 9월호
통권 제143호

Contents

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상황 평가.....	01
2. 소비	04
3. 투자	06
4. 중앙정부 재정지출	10
5. 대외거래	14
6. 소비자물가	17

II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19
2. 가계대출 및 부동산	22
3. 기업 자금조달	24
4. 환율 및 외환시장	26

III 해외경제 동향

IV 경제이슈 분석

AI 투자 확대와 국내 설비투자 리스크 점검 :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문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32
---	----

경제동향 종합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꾸준히 회복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하고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기준선을 넘어섰으나, 중동전쟁의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

■ 7월 「생산」은 제조업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감소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6.5월)-0.4 → (6월)2.4 → (7월)0.0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6.5월)-3.3 → (6월)7.0 → (7월)0.2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6.5월)1.0 → (6월)0.9 → (7월)-1.3

■ 7월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전월대비 증가폭이 확대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6.5월)-0.4 → (6월)0.5 → (7월)0.8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6.5월)0.6 → (6월)0.9 → (7월)0.4

■ 7월 「소매판매액」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판매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감소

-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6.5월)-0.1 → (6월)2.7 → (7월)-2.4

■ 7월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기성액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감소

- 건설기성액(불변, 전월대비, %): ('26.5월)3.3 → (6월)4.2 → (7월)-1.1

■ 7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6.5월)-0.4 → (6월)8.2 → (7월)7.5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6.5월)9.3 → (6월)22.5 → (7월)24.9

■ 6월 통합재정 상 「중앙정부 총지출」은 6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대비 35.8조원(9.9%) 증가

- 총지출 증감(누계, 전년대비, 조원): ('26.4월)24.0 → (5월)37.5 → (6월)35.8
- 경상지출 증감(누계, 전년대비, 조원): ('26.4월)24.9 → (5월)38.4 → (6월)37.1
- 자본지출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6.4월)-0.9 → (5월)-0.8 → (6월)-1.3

■ 8월 「무역수지」는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로 347.5억달러 흑자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6월)70.4 → (7월)63.0 → (8월)68.7
- 수입(전년동월대비, %): ('26.6월)30.0 → (7월)26.5 → (8월)22.5
- 무역수지(억달러): ('26.6월)359.0 → (7월)303.9 → (8월)347.5

경제동향 종합

■ 8월 「소비자물가」는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 확대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6.6월)3.2 → (7월)2.8 → (8월)3.1

■ 8월 「국고채금리」는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 국고채금리(3년물, 월평균, %): ('26.6월)3.79 → (7월)3.83 → (8월)3.79
- 회사채금리(3년물 AA-, 월평균, %): ('26.6월)4.43 → (7월)4.53 → (8월)4.49
- 위험 스프레드(회사채3년물-국고채3년물, %p): ('26.6월)0.64 → (7월)0.70 → (8월)0.70

■ 8월 「코스피 지수」는 일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월말 대비 상승

- 코스피 지수(월말, 1980.1.4.=100): ('26.6월)8,476.5 → (7월)6,595.5 → (8월)6,820.0
-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10만주): ('26.6월)4,900.2 → (7월)4,323.9 → (8월)3,239.2

■ 6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

- 가계대출(조원): ('26.4월)1,338.6 → (5월)1,345.2 → (6월)1,351.0
- 주택담보대출(조원): ('26.4월)921.1 → (5월)923.6 → (6월)926.3

■ 7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전월대비 증가,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감소

- 주택매매 가격지수(전국, 전월대비, %): ('26.5월)0.21 → (6월)0.33 → (7월)0.35
- 주택매매 거래량(건): ('26.5월)62,703 → (6월)68,819 → (7월)63,185

■ 6월 「기업대출」은 은행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3.6조원 증가

- 기업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6.4월)68.4 → (5월)68.6 → (6월)83.6
- 기업대출잔액(조원): ('26.4월)1946.0 → (5월)1955.2 → (6월)1961.3

■ 7월 「주식 및 채권발행」은 단기사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주식·회사채(조원): ('26.5월)20.1 → (6월)27.2 → (7월)26.3
- CP·단기사채(조원): ('26.5월)259.4 → (6월)272.1 → (7월)175.2

■ 8월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한 가운데 변동성도 축소

- 원/달러 환율(월말기준, 원): ('26.6월)1,541.5 → (7월)1,441.1 → (8월)1,376.5
- 원/달러 환율 변동성(%): ('26.6월)9.9 → (7월)10.7 → (8월)5.6

■ 8월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증가

- 외환보유액(기말기준, 억달러): ('26.6월)4,273.6 → (7월)4,279.5 → (8월)4,422.8
- 외환보유액 증감액(전월대비, 억달러): ('26.6월)3.7 → (7월)5.9 → (8월)143.3

주요 경제 지표

(전기대비, %, 원)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2Q	3Q	4Q	1Q	2Q	6월	7월	8월
전산업생산	1.6	1.1	0.2 (0.3)	0.3 (1.0)	0.9 (3.6)	-0.6 (-0.2)	1.7 (2.8)	2.4 (4.4)	0.0 (3.1)	-
제조업생산	4.3	3.0	0.8 (2.8)	0.9 (3.5)	1.4 (8.1)	-3.3 (-1.9)	3.0 (2.9)	7.0 (6.3)	0.2 (3.9)	-
서비스업생산	1.3	2.0	0.3 (0.9)	0.4 (1.6)	0.7 (3.2)	1.2 (2.3)	1.2 (4.0)	0.9 (5.4)	-1.3 (3.5)	-
소매판매액	-1.9	0.3	-0.6 (-0.1)	1.2 (1.6)	0.6 (0.9)	2.4 (3.2)	-1.8 (2.2)	2.7 (3.9)	-2.4 (-0.8)	-
건설기성액	-4.6	-16.5	-2.6 (-17.3)	-0.8 (-11.9)	-4.1 (-15.1)	0.5 (-6.1)	0.1 (-4.8)	4.2 (-4.3)	-1.1 (-3.2)	-
설비투자지수	3.0	1.2	0.3 (5.5)	0.6 (1.2)	-3.8 (-6.2)	13.0 (9.8)	3.7 (13.2)	8.2 (22.5)	7.5 (24.9)	-
수출(통관)	8.1	3.8	2.1	6.5	8.4	38.4	57.2	70.4	63.0	68.7
수입(통관)	-1.7	0.0	-1.7	1.6	1.4	11.1	22.3	30.0	26.5	28.9
경상수지(억달러)	1,000	1,231	284	360	392	744	1,166	497.3	420.8	-
소비자물가	2.3	2.1	2.1	2.0	2.4	2.1	3.0	3.2	2.8	3.1
취업자수 증감 (천명)	160	193	207	217	195	183	43	73	158	180
실업률	2.8	2.8	2.8	2.2	2.9	3.5	2.9	2.8	2.6	2.0
원/달러환율	1,364	1,422	1,356	1,402	1,435	1,513	1,542	1,542	1,441	1,377
국고채금리(3년)	3.11	2.57	2.39	2.45	2.84	3.32	3.63	3.79	3.83	3.79

주: 1.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수출 및 수입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매매기준율 기준

4. 취업자수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5. 국고채금리는 기간 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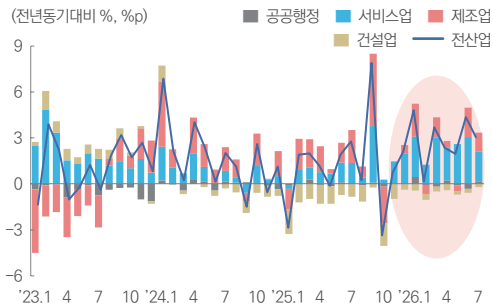
CHAPTER

01 경제상황 평가

■ '26.7월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증가율이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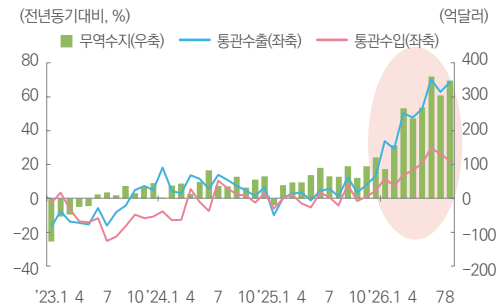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회복세와 제조업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건설업도 부진 폭이 감소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6.5월)-0.4 → (6월)2.4 → (7월)0.0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5월)52.9 → (6월)70.4 → (7월)63.0 → (8월)68.7

| 그림 1 | 전산업 생산 증가율



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제시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여도를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2 |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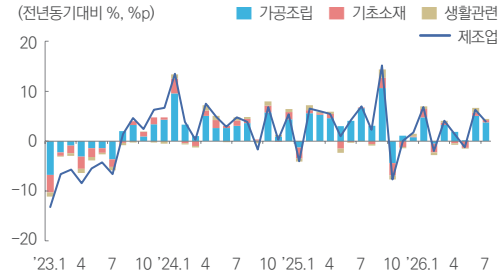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 「생산」은 '26.7월 서비스업이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제조업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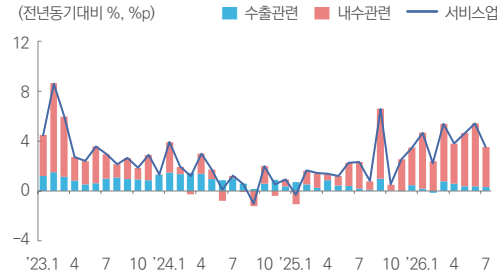
- 전월대비로도 제조업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6.5월)-3.3 → (6월)7.0 → (7월)0.2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6.5월)1.0 → (6월)0.9 → (7월)-1.3*
 - ※ 추가하락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금융·보험(-4.8%) 등에서 생산이 감소

| 그림 3 |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제시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여도를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4 |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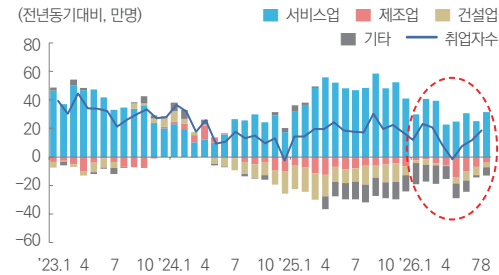


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제시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여도를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 「취업자 수」는 '26.8월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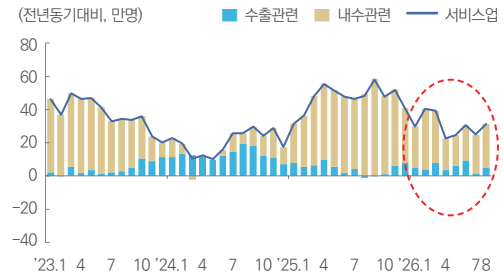
- 서비스업이 내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중동전쟁 이후의 부진이 개선
 - 전산업(전년동월대비 증감, 만명): ('26.6월)6.3 → (7월)10.8 → (8월)18.4
 - 제조업(전년동월대비 증감, 만명): ('26.6월)-9.7 → (7월)-6.8 → (8월)-3.8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증감, 만명): ('26.6월)-6.7 → (7월)-5.7 → (8월)-3.2
 - 서비스업(전년동월대비 증감, 만명): ('26.6월)30.5 → (7월)24.9 → (8월)31.3

| 그림 5 |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6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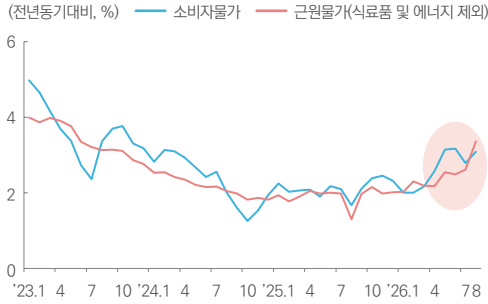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창고·통신업을 수출관련 서비스업으로, 그 외 서비스업을 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자료: 국가데이터처

■ 「소비자물가」는 '26.8월 3.1% 오르며 2% 물가안정목표를 상당 폭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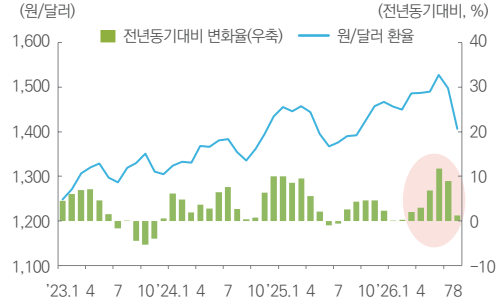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3.4%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6월)3.2 → (7월)2.8 → (8월)3.1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6.6월)2.5 → (7월)2.6 → (8월)3.4
 - ※ 다만 8월에는 '25.8월 SK텔레콤의 한시 일회성 요금인하에 크게 영향(기여도 0.58%p)
- 원/달러 환율은 3월 이후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다가 최근 큰 폭 하락
 - 원/달러환율(전년동월대비, %): ('26.6월)11.7 → (7월)8.9 → (8월)1.2

| 그림 7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8 |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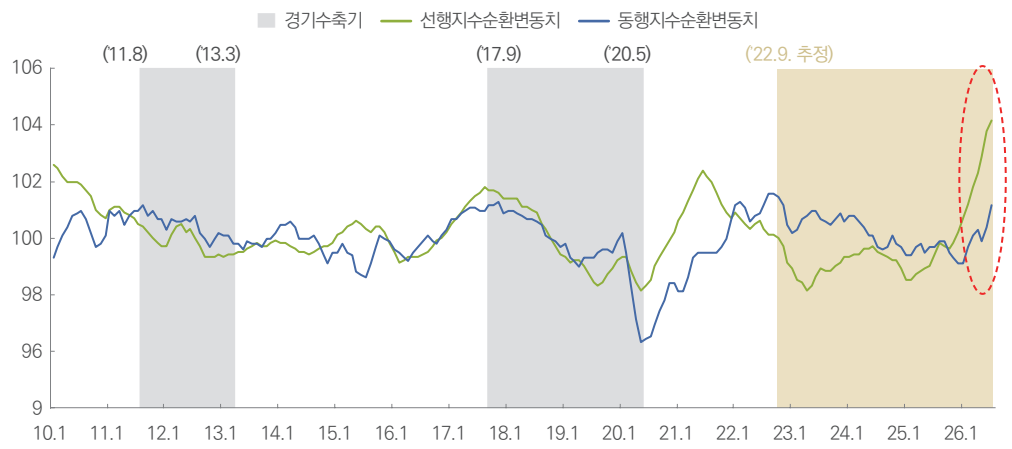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7월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전월대비 증가폭이 확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1.2)는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0.8p 상승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6.5월)-0.4 → (6월)0.5 → (7월)0.8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4.2)는 수출입물가비율,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4p 상승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6.5월)0.6 → (6월)0.9 → (7월)0.4

| 그림 9 |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4)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경기정점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 7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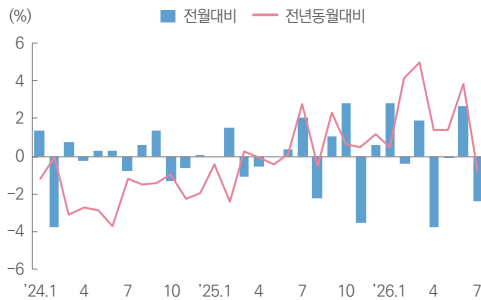
- 소매판매액은 내구재가 큰 폭 감소하여 전월대비 감소

-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6.5월)-0.1 → (6월)2.7 → (7월)-2.4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6.5월)1.3 → (6월)0.6 → (7월)-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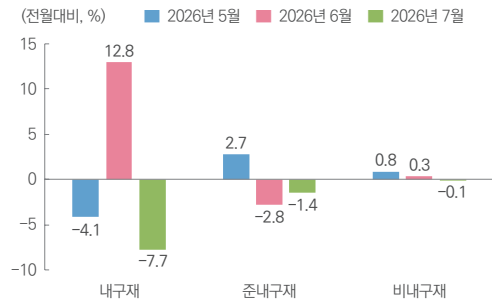
※ 7월 「소매판매액」은 일시적 소비 증가 요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특정 기업의 판촉 행사 등)이 사라지며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계절조정 계열의 2026년 5월 대비 증가율은 0.3% 증가

| 그림 10 |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11 | 재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판매 감소로 전월대비 7.7% 감소

- 내구재(전월대비, %): ('26.5월)-4.1 → (6월)12.8 → (7월)-7.7

- 승용차(전월대비, %): ('26.5월)-10.9 → (6월)21.4 → (7월)-11.1

- 가전제품(전월대비, %): ('26.5월)1.5 → (6월)11.4 → (7월)-9.5

- 통신기기 및 컴퓨터(전월대비, %): ('26.5월)4.4 → (6월)20.9 → (7월)-4.4

- 준내구재는 의복 등의 판매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1.4% 감소

- 준내구재(전월대비, %): ('26.5월)2.7 → (6월)-2.8 → (7월)-1.4

- 의복(전월대비, %): ('26.5월)3.0 → (6월)-2.9 → (7월)-3.2

- 신발 및 가방(전월대비, %): ('26.5월)1.8 → (6월)-2.3 → (7월)2.8

- 비내구재는 화장품 등의 판매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0.1% 감소

- 비내구재(전월대비, %): ('26.5월)0.8 → (6월)0.3 → (7월)-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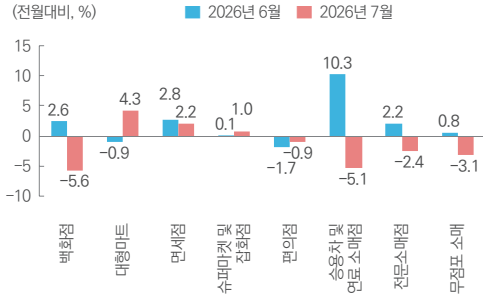
- 음식료품(전월대비, %): ('26.5월)0.1 → (6월)0.6 → (7월)1.1

- 차량연료(전월대비, %): ('26.5월)4.6 → (6월)-1.9 → (7월)2.9

- 화장품(전월대비, %): ('26.5월)6.7 → (6월)-4.4 → (7월)-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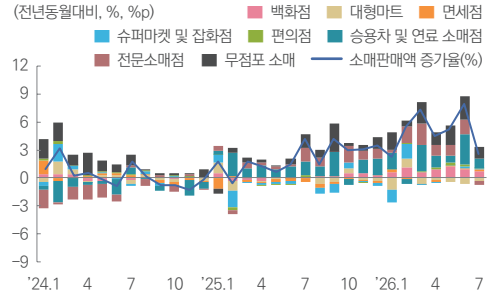
- 소매업태별로는 대형마트(4.3%), 면세점(2.2%), 슈퍼마켓 및 잡화점(1.0%) 등에서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백화점(-5.6%),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5.1%) 등에서 전월대비 감소

| 그림 12 | 업태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13 | 업태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기여도



주: 경상금액 기준 소매판매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에 대한 업태별 기여도(%p)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 중 전월대비 2.3p 하락한 104.5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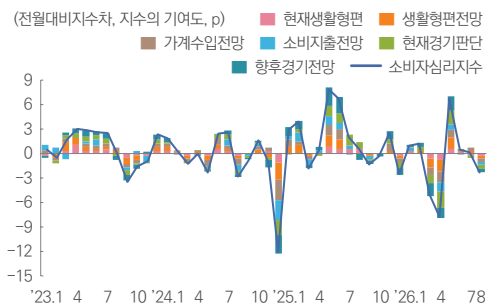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의 6개 세부지표로 구성
- 현재경기판단(79), 향후경기전망(89)은 전월대비 각각 5p, 3p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 ('26.6월)106.6 → (7월)106.8 → (8월)104.5

| 그림 14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전년 12월)를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그림 15 | 소비자심리지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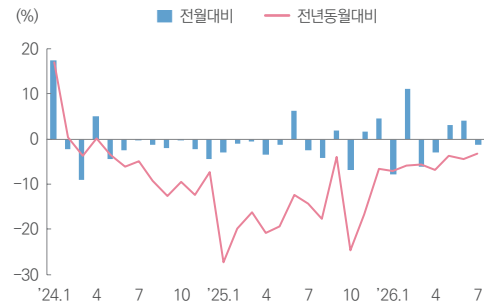
주: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지수차(p)에 대한 구성 지수별 기여도(p)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가. 건설투자

■ 7월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기성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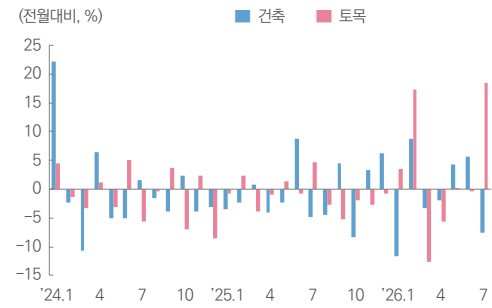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불변)은 전월대비 1.1% 감소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6.5월)3.3 → (6월)4.2 → (7월)-1.1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6.5월)4.3 → (6월)5.7 → (7월)-7.4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6.5월)0.3 → (6월)-0.3 → (7월)18.5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의 감소폭은 축소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6.5월)-3.7 → (6월)-4.3 → (7월)-3.2

| 그림 16 |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7 | 공종별 건설기성액(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건설경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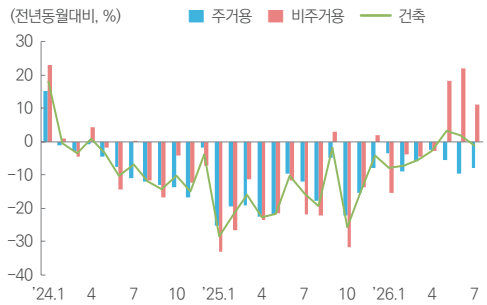
■ 7월 「건설기성액(경상)」^[1]은 토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

- 건설기성액(경상)은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 건설(경상, 전년동월대비, %): ('26.5월)1.8 → (6월)1.5 → (7월)2.4
- 건축부문은 비주거용 건축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6.5월)3.5 → (6월)2.1 → (7월)-0.9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6.5월)-5.3 → (6월)-9.4 → (7월)-7.9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6.5월)18.3 → (6월)22.2 → (7월)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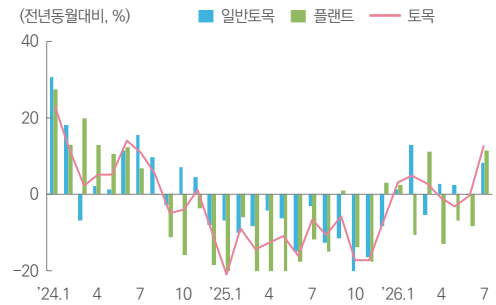
[1] 세부 공정에 대한 건설기성액 동향을 경상 금액을 기준으로 파악(불변기준 건설기성액 세부내역은 공표되지 않음)

- 토목부문은 일반토목, 전기기계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6.5월)-3.1 → (6월)-0.2 → (7월)12.6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6.5월)2.3 → (6월)-0.2 → (7월)8.3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 ('26.5월)-8.0 → (6월)38.8 → (7월)43.4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26.5월)-6.9 → (6월)-8.2 → (7월)11.5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민간부문도 소폭의 증가로 전환
 - 공공(경상, 전년동월대비, %): ('26.5월)5.0 → (6월)13.5 → (7월)12.4
 - 민간(경상, 전년동월대비, %): ('26.5월)1.3 → (6월)-2.0 → (7월)0.5

| 그림 18 | 공종별 건축기성액(경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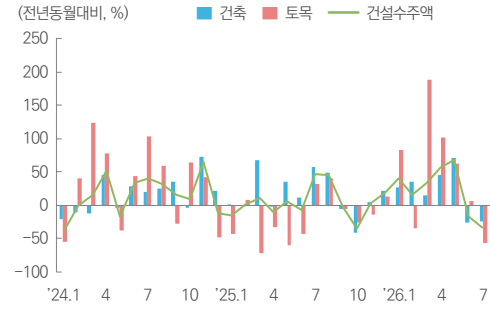
| 그림 19 | 공종별 토목기성액(경상) 추이



■ 7월 「건설기성액(경상)」은 전월동월대비 34.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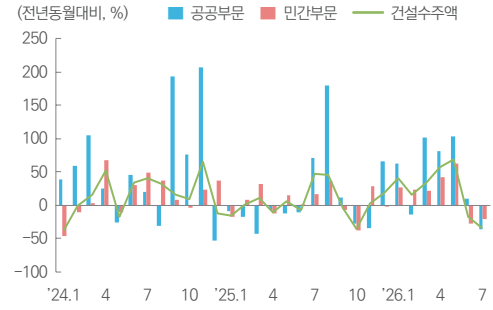
- 공종별로는 건축과 토목 수주 모두 큰 폭 감소
 - 건축 수주는 주택(-33.7%)가 큰 폭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3.2% 감소
 - 토목 수주는 항만 및 공항(-93.3%) 부문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5.0% 감소
 - 건설수주액(전년동월대비, %): ('26.5월)70.3 → (6월)-17.8 → (7월)-34.0
- 발주자별로는 민간 및 공공 부문 수주 모두 큰 폭 감소
 - 민간부문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19.7% 감소하였고, 공공부문 수주는 34.9% 감소

| 그림 20 | 공종별 건설수주액(경상)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21 | 발주자별 건설수주액(경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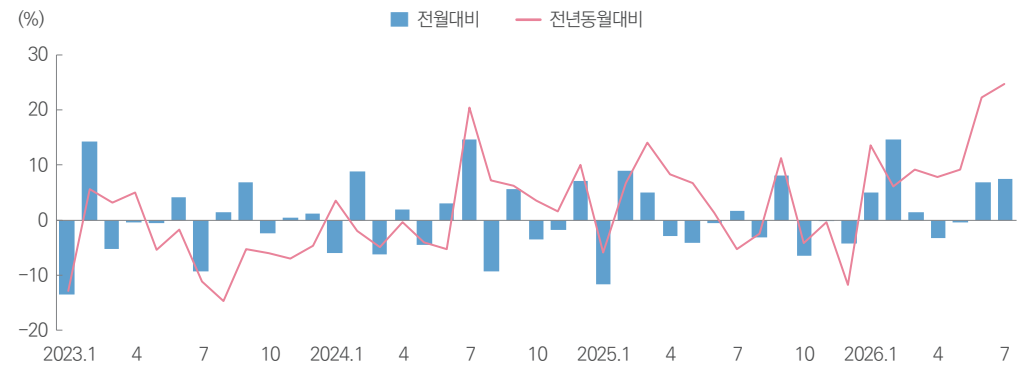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나. 설비투자

■ 7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7.5%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6.5월)-0.4 → (6월)8.2 → (7월)7.5
 - 기계류(전월대비, %): ('26.5월)-0.1 → (6월)8.2 → (7월)4.2
 - 운송장비(전월대비, %): ('26.5월)-1.0 → (6월)3.8 → (7월)15.4
- 전년동월대비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하며 전체 24.9% 증가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6.5월)9.3 → (6월)22.5 → (7월)24.9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6.5월)12.7 → (6월)23.3 → (7월)21.3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6.5월)3.1 → (6월)20.8 → (7월)32.7

| 그림 22 | 설비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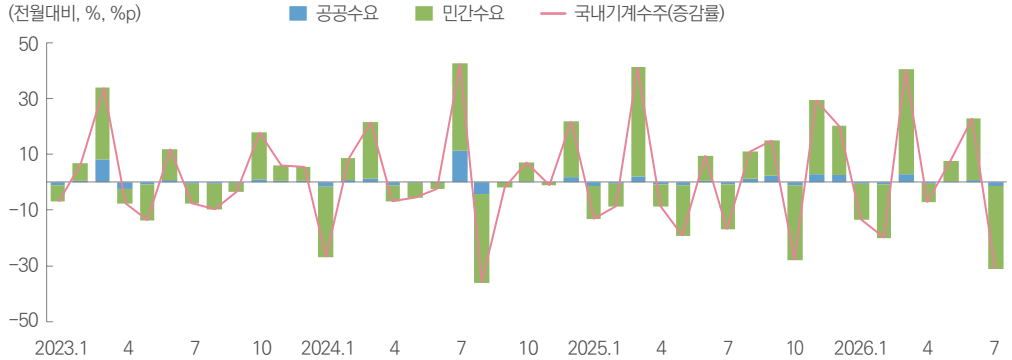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 7월 「국내기계수주」는 민간·공공 부문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30.9% 감소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6.5월)7.7 → (6월)22.9 → (7월)-30.9
- 공공부문(전월대비, %): ('26.5월)-55.9 → (6월)53.2 → (7월)-4.8
- 민간부문(전월대비, %): ('26.5월)12.1 → (6월)22.1 → (7월)-31.8

| 그림 23 |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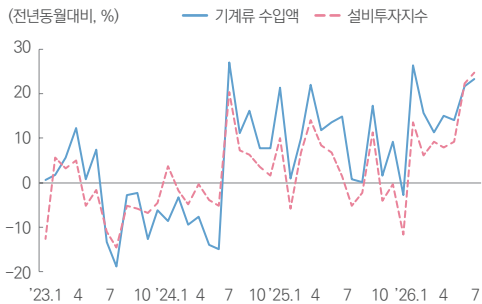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 「산업활동동향」

■ 7월 「기계설비류 내수출하(선박제외)」는 전월대비 감소, 「기계류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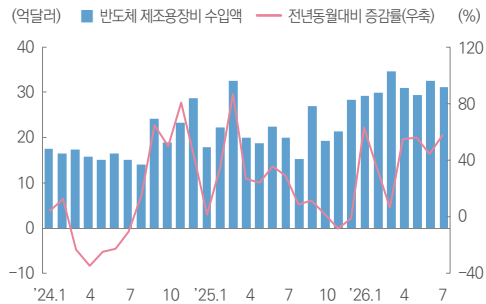
- 기계설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6.3% 감소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6.5월)-4.3 → (6월)17.8 → (7월)-6.3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6.5월)14.1 → (6월)21.8 → (7월)23.5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6.5월)56.1 → (6월)44.6 → (7월)58.2

| 그림 24 | 기계류 수입액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터,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 그림 25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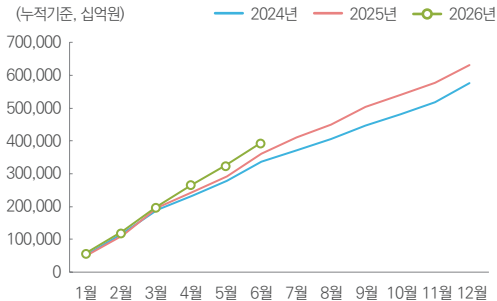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04 중앙정부 재정지출

■ 통합재정 「중앙정부 총지출」^[2]은 6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대비 35.8조원(9.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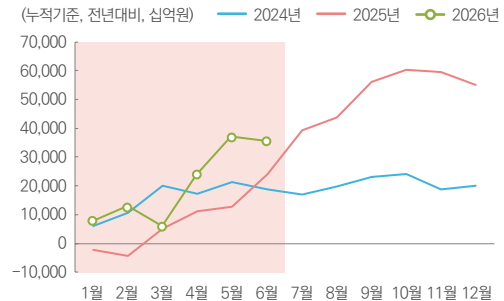
- 2026년 1~6월 중 중앙정부 통합재정 재정지출에서 순융자를 뺀 중앙정부 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규모는 396.5조원으로 전년대비 35.8조원(9.9%) 증가
 - 경상지출은 371.0조원으로 전년대비 37.1조원(11.1%) 증가하였으나, 자본지출은 25.5조원으로 전년대비 1.3조원(4.8%) 감소
 - 총지출 증감(누계, 전년대비, 조원): ('26.4월)24.0 → (5월)37.5 → (6월)35.8
 - 통합재정수지(누계, 조원)^[3]: ('26.4월)-13.2 → (5월)-23.4 → (6월)-43.9

| 그림 26 | 중앙정부 총지출 월별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 그림 27 | 중앙정부 총지출 월별 증감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 경상지출은 가계 및 지방정부 경상이전 지출 등에서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토지 및 무형자산매입, 고정자산 취득 모두 감소

- 1~6월 중 경상지출^[4]은 371.0조원으로 지방정부 경상이전(15.8조원), 가계 경상이전(11.1조원) 등을 중심으로 늘어 전년대비 37.1조원(11.1%) 증가

[2] 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는 총지출과 통합재정 상 재정지출이다. 총지출은 총계 기준으로 작성하며 일반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과 융자지출을 합한 규모이다. 통합재정 상 재정지출은 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에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를 더한 재정지출 규모이다. 현재는 IMF의 1986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재정 활동의 경제적 영향 및 재정 건전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979년부터 연간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부터 월별 실적을 공표하고 있다.

[3]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순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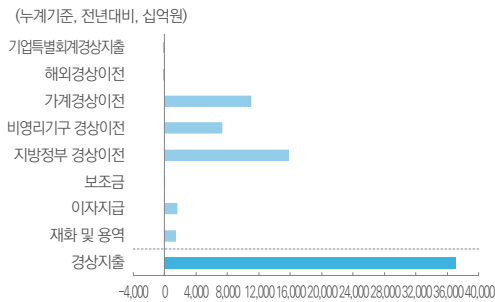
[4] 경상지출은 ①재화 및 용역, ②이자지급, ③보조금 및 경상이전, ④기업특별회계 경상지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화 및 용역은 급여 및 임금, 사회보장기여금, 기탁재화 및 용역구입 등에 대한 지출이다. 이자지급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외 등의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한 지출이다. 보조금 및 경상이전 지출은 보조금, 지방정부에 대한 경상이전, 비영리기관에 대한 경상이전, 가계에 대한 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 등이다. 기업특별회계 경상지출은 비금융공기업의 경상지출이다.

- 경상지출 증감(누계, 전년대비, 조원): ('26.4월)24.9 → (5월)38.4 → (6월)37.1
- 가계 경상이전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6.4월)5.4 → (5월)10.3 → (6월)11.1
- 지방정부 경상이전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6.4월)8.0 → (5월)14.3 → (6월)15.8
- 비영리기구 경상이전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6.4월)7.0 → (5월)9.4 → (6월)7.4

• 1~6월 중 자본지출^[5]은 25.5조원으로 고정자산취득, 토지 및 무형자산매입에서 모두 줄어 전년대비 1.3조원(4.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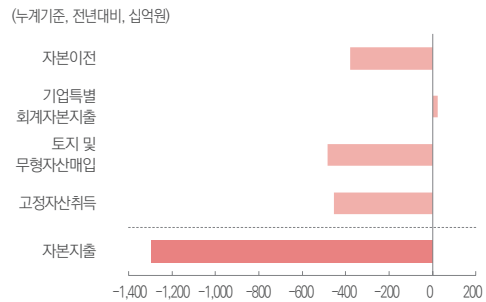
- 자본지출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6.4월)-0.9 → (6월)-0.8 → (6월)-1.3
- 고정자산취득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6.4월)-0.8 → (5월)-1.4 → (6월)-0.5
- 토지 및 무형자산매입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6.4월)-0.6 → (5월)-0.6 → (6월)-0.5
- 자본이전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십억원): ('26.4월)0.5 → (5월)1.1 → (6월)-0.4

| 그림 28 | 경상지출 항목별 증감



자료: 재정경제부

| 그림 29 | 자본지출 항목별 증감



자료: 재정경제부

[5] 자본지출은 ①고정자산취득, ②재고자산매입, ③토지 및 무형자산매입, ④자본이전 등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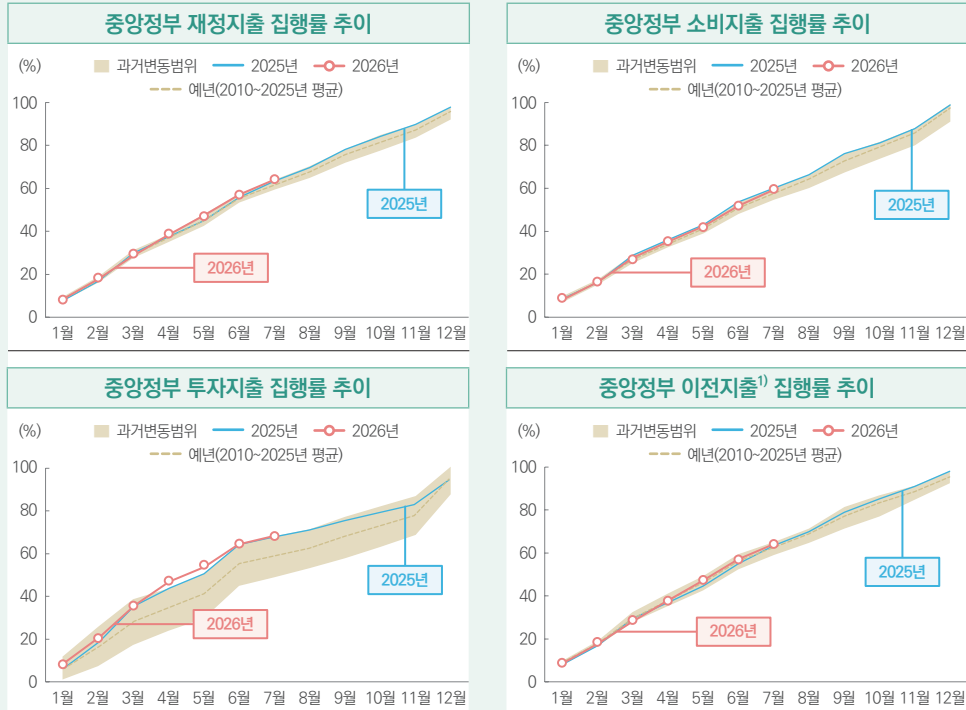
[BOX]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한 국민소득 기준 재정 집행률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월별 정부지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소득통계 기준 중앙정부 재정지출 집행률을 시범 추정

- 한국재정정보원(FIS)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시스템이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출 세목별 세출집행실적을 월별로 시차 없이 집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 IMF의 '01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을 원용하여 국민소득통계 상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그 주요 구성 항목인 소비지출, 투자지출, 이전지출 등의 집행률을 월별로 추정
 - dBrain에 수록된 당월까지의 항목별 지출액과 세출예산액(최종예산 기준, 연간)을 '01 재정통계편람(GFS) 체계에 맞추어 각각 재분류한 다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산출 (집행률 = 지출액/예산액)
 - 정부도 '01 재정통계편람(GFS)을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 작성에 활용하고 있으며 작성 결과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통합재정수지」에 수록하여 공표
 - * 자세한 내용은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34호(2025.3.) “IV. 경제이슈 분석: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국민소득통계 간 연계 분석”을 참조(p.38~46)
- 이렇게 재분류한 '26년 세출예산액(최종예산 기준, 연간)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이전지출, 소비지출, 투자지출 순
 - 소비지출('26년 예산 중 12.2%): 피용자보수, 재화와 용역의 사용 등
 - 투자지출('26년 예산 중 10.4%): 총고정자본형성
 - 이전지출('26년 예산 중 55.2%, 사회급여 제외): 이자지급, 보조금, 출연금 등
 - 사회급여('26년 예산 중 22.0%, 사회보장기금의 지출): 사회보장급여, 사회부조급여
 - * 국민소득통계는 국민연금 등 사회급여를 중앙정부가 아닌 사회보장기금의 이전지출로 분류(국민소득통계 상 일반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
-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집행률은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을 시차 없이 국민소득통계의 관점(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
 - 현재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는 서로 다른 분류체계와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어 구성항목과 금액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국민소득의 관점(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에서 재정동향을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체 추정한 국민소득 기준 '26.7월 중앙정부 재정지출 집행률은 예년 7월의 평균 집행률(2010~202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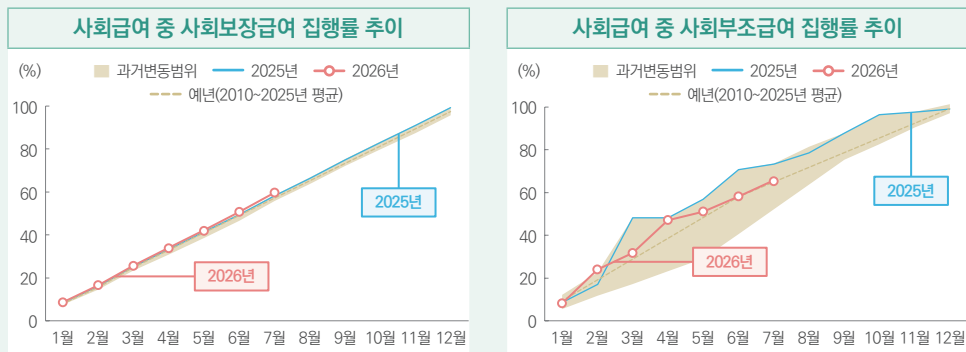
- 다만 '26.7월 투자지출 집행률은 역대 최고였던 '25년 수준과 비슷



주: 1) 국민소득통계가 사회급여를 중앙정부가 아니라 사회보장기금의 이전지출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이전지출 산출시 동 항목을 제외(국민소득통계 상 정부 = 중앙 + 지방 + 사회보장기금).

자료: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사회급여 집행률(사회보장기금의 지출로 분류)도 특이 동향없이 예년 5월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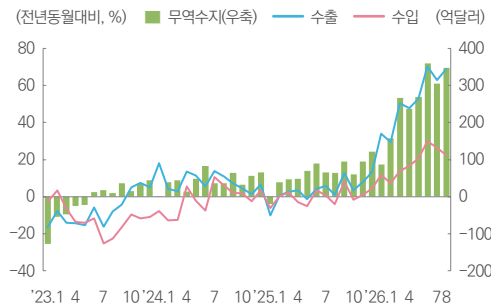
자료: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 8월 「무역수지」는 347.5억달러 흑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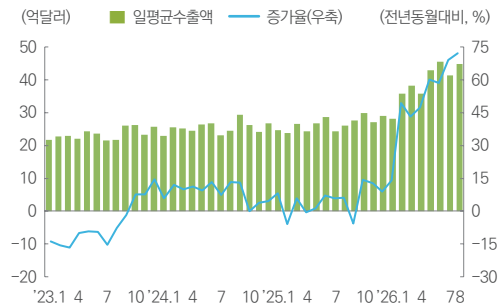
- 수출은 982.5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7%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6월)70.4 → (7월)63.0 → (8월)68.7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6.6월)45.3 → (7월)41.2 → (8월)44.7
- 수입은 635.1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9% 증가
 - 수입(전년동월대비, %): ('26.6월)30.0 → (7월)26.5 → (8월)22.5
 - 일평균수입액(억달러): ('26.6월)29.4 → (7월)28.6 → (8월)28.9
-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347.5억달러로 3개월 연속 300억달러 이상 기록
 - 무역수지(억달러): ('26.6월)359.0 → (7월)303.9 → (8월)347.5

| 그림 30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 그림 31 | 일평균 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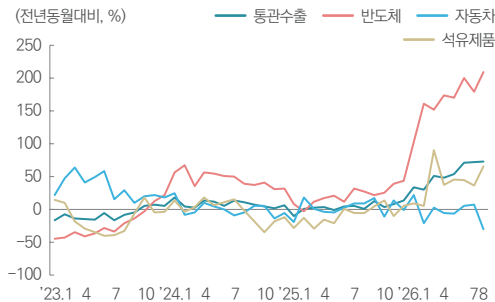
■ 8월 「수출」은 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별로는 중국, 아세안, 미국 등을 중심으로 증가

- 반도체, 컴퓨터 등 IT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도 증가하였으며, 다만 자동차는 전년동월대비 29.8% 감소
 - 반도체(전년동월대비, %): ('26.6월)199.5 → (7월)178.8 → (8월)209.0
 - 자동차(전년동월대비, %): ('26.6월)5.7 → (7월)7.0 → (8월)-29.8
 - 석유제품(전년동월대비, %): ('26.6월)44.3 → (7월)36.0 → (8월)65.3
 - 컴퓨터(전년동월대비, %): ('26.6월)308.8 → (7월)404.2 → (8월)419.5

• 중국, 아세안,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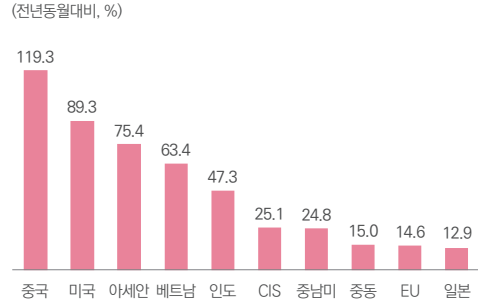
-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6.6월)91.9 → (7월)96.2 → (8월)119.3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6.6월)78.5 → (7월)69.1 → (8월)89.3
- 대일본 수출(전년동월대비, %): ('26.6월)14.6 → (7월)10.9 → (8월)12.9
- 대아세안 수출(전년동월대비, %): ('26.6월)85.5 → (7월)73.7 → (8월)75.4

| 그림 32 |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 그림 33 | 8월 중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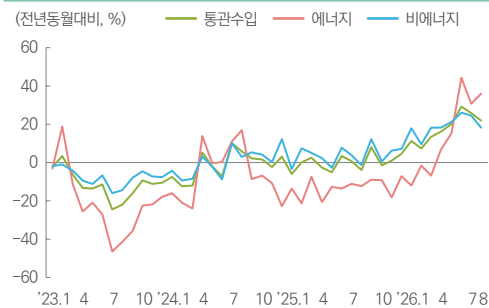


주: CIS는 독립국가연합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 8월 「수입」은 에너지와 비에너지 부문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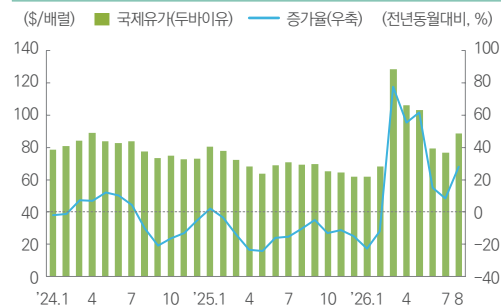
- 에너지 수입은 원유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36.7% 증가
- 비에너지 수입은 반도체제조용장비(117.3%), 비철금속(27.6%)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8.7% 증가
 - 에너지(전년동월대비, %): ('26.6월)44.9 → (7월)31.3 → (8월)36.7
 - 비에너지(전년동월대비, %): ('26.6월)26.9 → (7월)25.4 → (8월)18.7
 - 원유수입가격(전년동월대비, %): ('26.6월)66.9 → (7월)43.6 → (8월)25.6

| 그림 34 | 부문별 수입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 그림 35 |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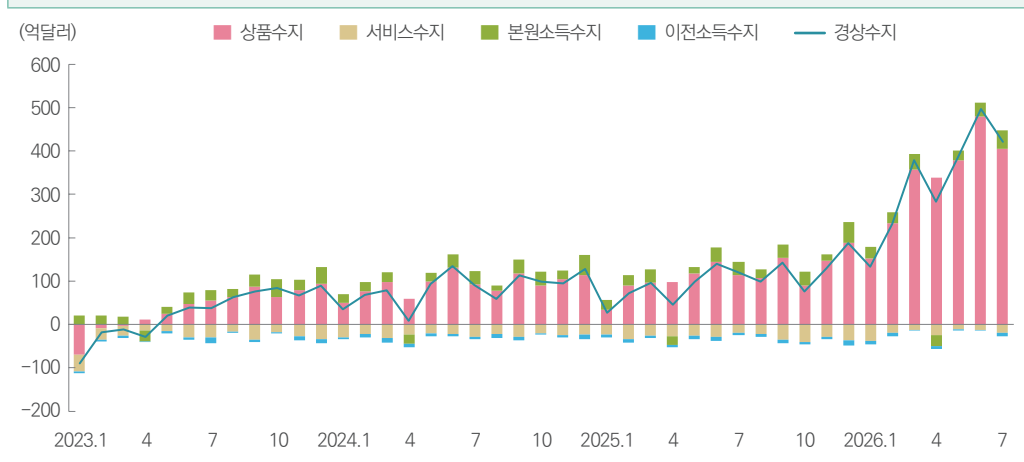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관세청

나. 경상수지

■ 7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흑자 규모 확대

- 경상수지는 420.8억달러로 39개월 연속 흑자 기록
 - 경상수지(억달러): ('26.5월)386.1 → (6월)497.3 → (7월)420.8
- 상품수지는 일반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404.3억달러 흑자
 - 상품수지(억달러): ('26.5월)378.6 → (6월)478.9 → (7월)404.3
 - 일반상품수지(억달러): ('26.5월)349.2 → (6월)450.8 → (7월)385.0
 - 중계무역순수출(억달러): ('26.5월)21.9 → (6월)20.3 → (7월)15.6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와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19.7억달러 적자
 - 서비스수지(억달러): ('26.5월)-10.9 → (6월)-12.9 → (7월)-19.7
 - 여행수지(억달러): ('26.5월)0.5 → (6월)4.4 → (7월)-3.4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억달러): ('26.5월)0.7 → (6월)-4.4 → (7월)-5.4
 - 기타사업서비스수지(억달러): ('26.5월)-11.1 → (6월)-15.9 → (7월)-7.7
-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43.5억달러 흑자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6.5월)21.7 → (6월)32.7 → (7월)43.5
 - 투자소득수지(억달러): ('26.5월)23.0 → (6월)33.8 → (7월)45.9

| 그림 36 | 항목별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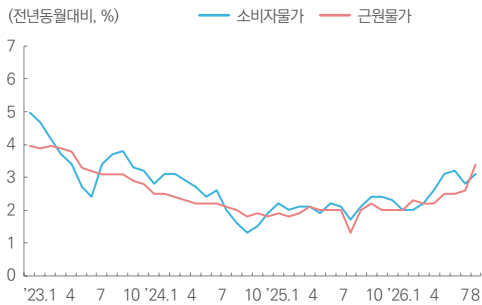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06 소비자물가

■ 7월 「소비자물가」는 서비스(3.7%)를 중심으로 상승하여 전월동월대비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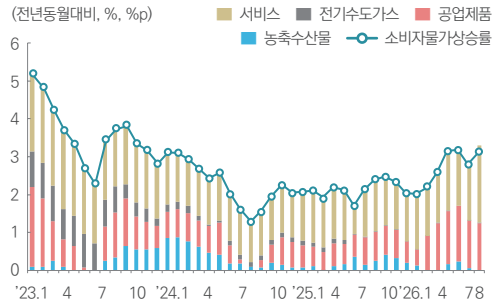
- 지난해 8월 휴대전화 반값할인의 기저효과로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6.6월)3.2 → (7월)2.8 → (8월)3.1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6.6월)3.8 → (7월)3.0 → (8월)2.3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6.6월)2.6 → (7월)2.6 → (8월)3.7
 - 근원물가상승률^[6](전년동월대비, %): ('26.6월)2.5 → (7월)2.6 → (8월)3.4

| 그림 37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38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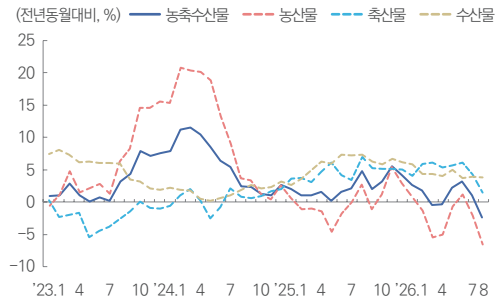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 위주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6% 하락
 - 농축수산물(전년동월대비, %): ('26.6월)3.2 → (7월)0.9 → (8월)-2.6
 - 농산물(전년동월대비, %): ('26.6월)1.1 → (7월)-2.2 → (8월)-6.7
 - 축산물(전년동월대비, %): ('26.6월)6.2 → (7월)4.4 → (8월)1.5
 - 수산물(전년동월대비, %): ('26.6월)3.7 → (7월)3.9 → (8월)3.8
- 공업제품 물가는 석유류(14.2%)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3.7% 상승
 - 공업제품(전년동월대비, %): ('26.6월)4.4 → (7월)3.7 → (8월)3.7
 - 가공식품(전년동월대비, %): ('26.6월)0.9 → (7월)1.0 → (8월)1.5
 - 석유류(전년동월대비, %): ('26.6월)24.7 → (7월)15.5 → (8월)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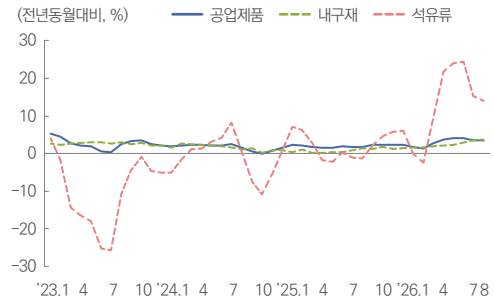
[6]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 그림 39 |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40 |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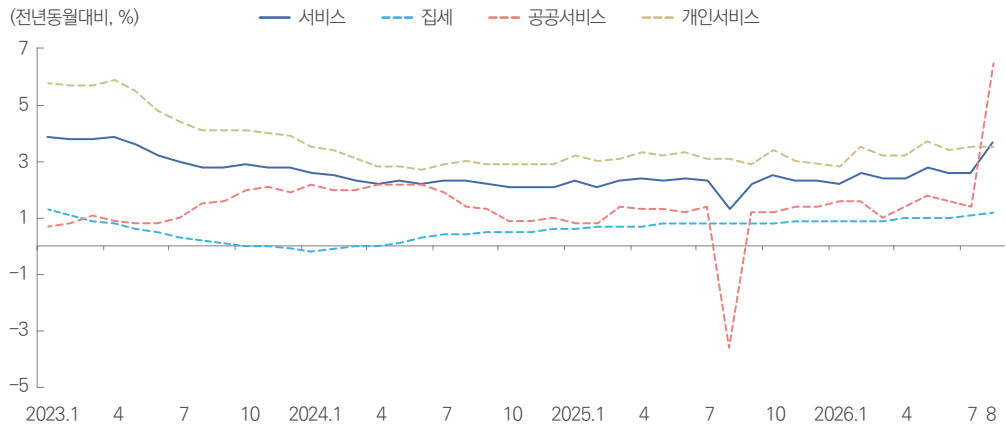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 서비스 물가는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서비스 물가(전년동월대비, %): ('26.6월)2.6 → (7월)2.6 → (8월)3.7
- 집세(전년동월대비, %): ('26.6월)1.0 → (7월)1.1 → (8월)1.2
- 공공서비스(전년동월대비, %): ('26.6월)1.6 → (7월)1.4 → (8월)6.5
- 개인서비스(전년동월대비, %): ('26.6월)3.4 → (7월)3.5 → (8월)3.5

| 그림 41 | 서비스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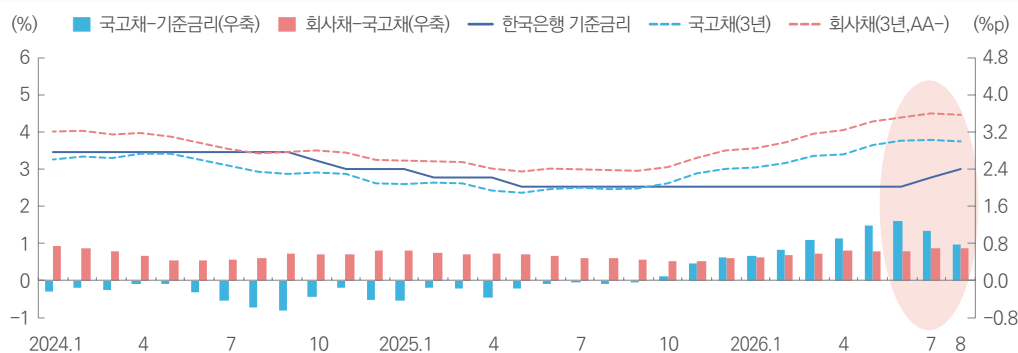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01 금리 및 주가

■ 「국고채금리」는 8월 중 전월대비 소폭 하락

- 국고채 금리는 3.79%로 전월대비 0.04%p 하락하였고, 기준금리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인상되어 국고채금리와 기준금리 간 금리차는 축소
 - 국고채금리(3년물, 월평균, %): ('26.6월)3.79 → (7월)3.83 → (8월)3.79
 - 금리차(국고채 3년물-기준금리, %p): ('26.6월)1.29 → (7월)1.08 → (8월)0.79
 - 기준금리는 3.00%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인상됨
- 회사채 금리는 4.49%로 전월대비 0.04%p 하락하였고, 회사채와 국고채 간 위험 스프레드는 0.70%p로 전월 수준 유지
 - 회사채금리(3년물 AA-, 월평균, %): ('26.6월)4.43 → (7월)4.53 → (8월)4.49
 - 위험 스프레드(회사채3년물-국고채3년물, %p): ('26.6월)0.64 → (7월)0.70 → (8월)0.70

| 그림 1 | 기준금리 및 채권금리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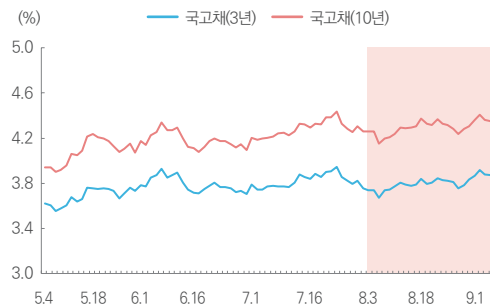


주: 채권금리는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채권금리의 일별 추이를 보면 8월 들어 월초 급락 흐름을 보이다 중순까지 상승하였고, 한은의 금통위 당일 급락하였으나 월말 재상승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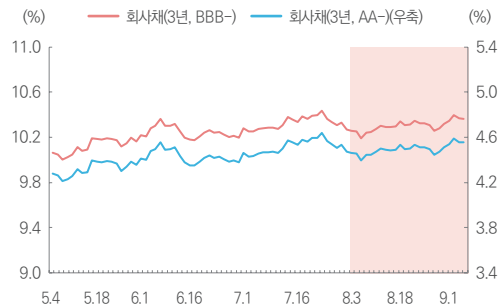
- 국고채 3년물은 8월 초순(8.5일 3.67%)까지 급락하다 이후 상승 전환되어 8.21일에는 3.85%까지 상승하였고 한은의 금통위 당일(8.27일 3.76%) 급락하였으나, 월말 재상승하여 9.2일에는 3.93%를 기록
 - 국고채 10년물은 3년물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 8.5일 4.15%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9.2일 4.42%를 기록
- 회사채 3년물(AA-)은 국고채금리 흐름을 따라 월초 하락과 중순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 한은 금통위 직후 하락하였으나 월말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짐
 - 비우량 회사채 3년물 금리(BBB-, 투자적격등급 하단)는 3년물(AA-)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며, 신용 스프레드(BBB-와 AA- 금리 간 차이)는 월말 5.81%p 수준으로 전월말(5.80%p)보다 소폭 상승
-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한은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임

| 그림 2 | 국고채 금리 일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그림 3 | 회사채금리 일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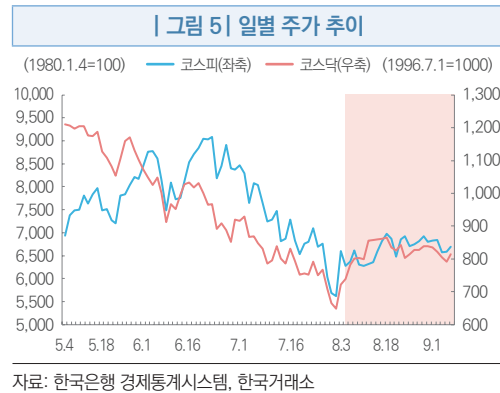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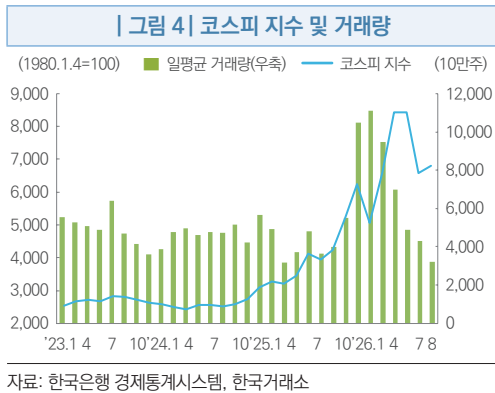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투자협회

■ 8월 중 「코스피 지수」는 전월말 대비 상승하였으나 일별 변동성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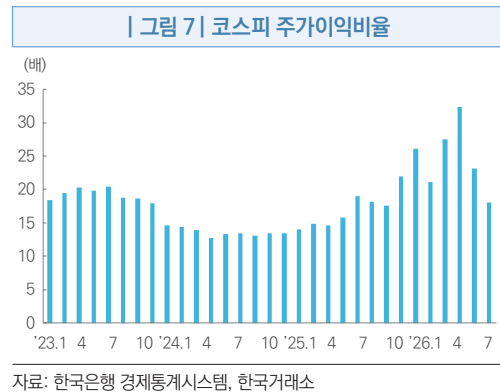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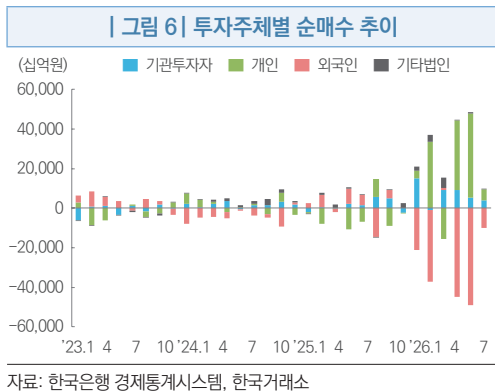
-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8월 19일에는 미국 장기금리 급등과 반도체주 하락 등으로 전일대비 5.8% 급락
 - 코스피 지수는 7월 중 전월말 대비 22.2% 하락하였으나, 8월에는 반도체 대형주 등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월말 대비 3.4% 상승
 - 코스피 지수(월말, 1980.1.4.=100): ('26.6월)8,476.5 → (7월)6,595.5 → (8월)6,820.0
 - 코스닥 지수(월말, 1996.7.1.=100): ('26.6월)916.6 → (7월)719.8 → (8월)834.3

-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8월 3억 2,392만주로 전월대비 25.1% 감소
 -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10만주): ('26.6월)4,900.2 → (7월)4,323.9 → (8월)3,239.2



■ 코스피 시장의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7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외국인투자자는 순매도

- 7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는 대량 순매도
 - 7월 투자자별 순매수(십억원): 기관투자자 3,992, 개인 5,372, 외국인 -9,894, 기타법인 498
 - 주가이익비율(PER, 배): ('26.5월)32.28 → (6월)23.06 → (7월)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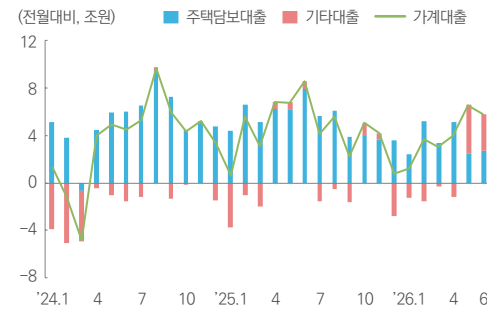


02 가계대출 및 부동산

■ 6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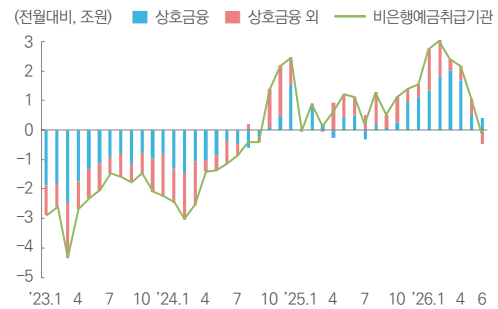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잔액은 전월대비 5.8조원 늘어난 1,351조원
 - 용도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대비 2.7조원 늘어난 926.3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기타대출은 전월대비 3.1조원 증가한 424.7조원을 기록
 - 가계대출(조원): ('26.4월)1,338.6 → (5월)1,345.2 → (6월)1,351.0
 - 주택담보대출(조원): ('26.4월)921.1 → (5월)923.6 → (6월)926.3
 - 기타대출(조원): ('26.4월)417.5 → (5월)421.6 → (6월)424.7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잔액은 전월대비 0.1조원 감소한 328.1조원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전월대비, 조원): ('26.4월)327.2 → (5월)328.2 → (6월)328.1
 - 상호금융 가계대출(조원): ('26.4월)184.2 → (5월)184.7 → (6월)185.1
 -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조원): ('26.4월)68.0 → (5월)68.1 → (6월)67.9

| 그림 8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9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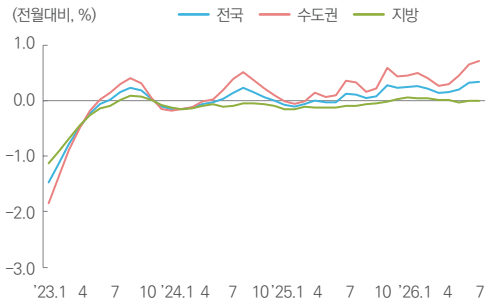
■ 6월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국내은행의 전국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5%p 감소한 0.40% 기록
 - 가계대출 연체율(전국, %): ('26.4월)0.42 → (5월)0.45 → (6월)0.40
 - 가계대출 연체율(서울, %): ('26.4월)0.47 → (5월)0.52 → (6월)0.45

■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전월세종합지수」는 전월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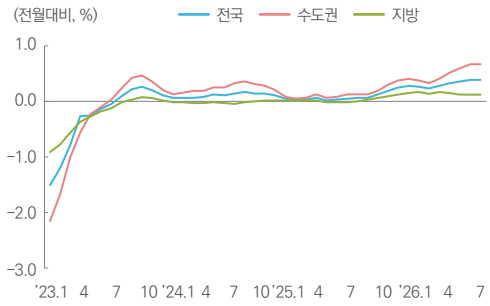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35% 상승
 - 주택매매가격지수(전국, 전월대비, %): ('26.5월)0.21 → (6월)0.33 → (7월)0.35
 - 전월세종합지수(전국, 전월대비, %): ('26.5월)0.36 → (6월)0.39 → (7월)0.39

| 그림 10 | 권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주: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그림 11 | 권역별 주택 전월세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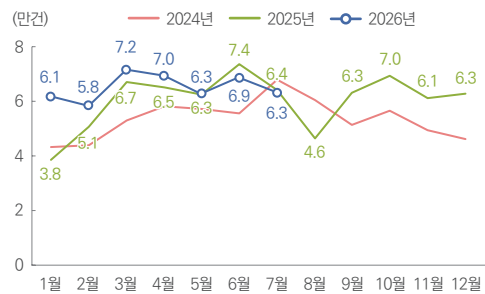


주: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7월 「주택매매 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모두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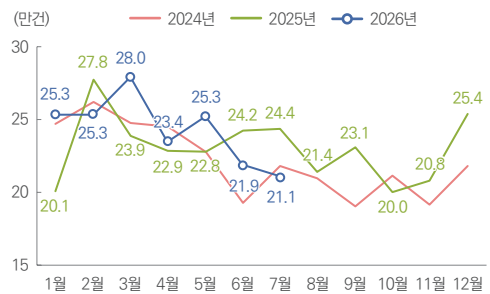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63,185건으로 전월대비 8.2% 감소하였으며, 전월세거래량은 210,985건으로 전월대비 3.5% 감소
 - 주택매매 거래량(건): ('26.5월)62,703 → (6월)68,819 → (7월)63,185
 - 전월세 거래량(건): ('26.5월)252,615 → (6월)218,618 → (7월)210,985

| 그림 12 |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 그림 13 |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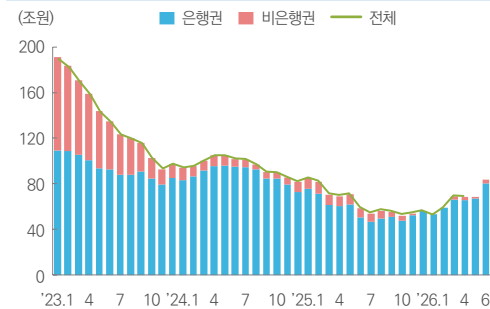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가. 기업대출

■ 6월 「기업대출」은 은행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83.6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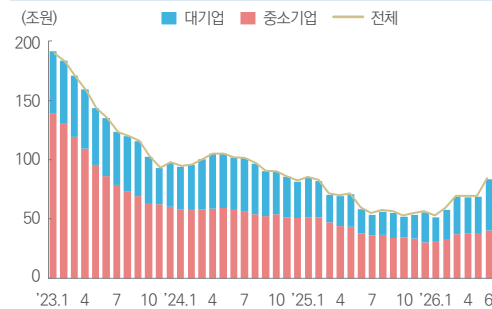
- 기업대출은 전년대비 83.6조원 증가한 1,961조원
 - 기업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6.4월)68.4 → (5월)68.6 → (6월)83.6
 - 기업대출잔액(조원): ('26.4월)1946.0 → (5월)1955.2 → (6월)1961.3
- 업권별로는 은행권(80.3조원)을 중심으로 증가
 - 은행권 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6.4월)68.4 → (5월)68.6 → (6월)80.3
 - 비은행권 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6.4월)2.6 → (5월)1.5 → (6월)3.3
 - 은행권 대출잔액(조원): ('26.4월)1,477.2 → (5월)1,487.4 → (6월)1,494.6
 - 비은행권 대출잔액(조원): ('26.4월)468.8 → (5월)467.8 → (6월)466.8
-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전년대비 42.9조원, 중소기업에서는 40.7조원 증가
 - 대기업 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6.4월)30.6 → (5월)30.2 → (6월)42.9
 - 중소기업 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6.4월)37.8 → (5월)38.4 → (6월)40.7
 - 대기업 대출잔액(조원): ('26.4월)382.2 → (5월)386.8 → (6월)393.5
 - 중소기업 대출잔액(조원): ('26.4월)1,563.8 → (5월)1,568.5 → (6월)1,567.9

| 그림 14 | 금융기관 기업대출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15 | 규모별 기업대출 증감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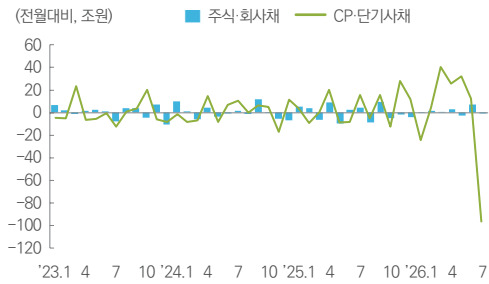
- 6월 기업대출 은행대출금 연체율은 0.68%로 전월대비 0.16%p 하락
 - 기업대출 은행대출금 연체율 (%): (4월)0.74 → (5월)0.84 → (6월)0.68

나. 주식 및 채권 발행

■ 7월 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은 단기사채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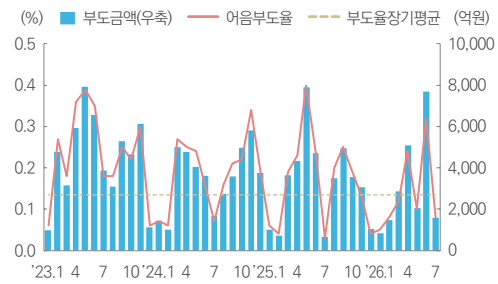
- 주식·회사채 총 발행액은 26조 3,42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0.5조원(-1.9%) 감소
 - 주식·회사채(조원): ('26.5월)20.1 → (6월)27.2 → (7월)26.3
 - 주식(조원): ('26.5월)14 → (6월)0.3 → (7월)1.5
 - 회사채(조원): ('26.5월)18.8 → (6월)26.8 → (7월)24.8
- CP·단기사채 총 발행액은 175조 1,742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96조 9,071억원(14.5%) 감소
 - CP·단기사채(조원): ('26.5월)259.4 → (6월)272.1 → (7월)175.2
 - CP(조원): ('26.5월)45.8 → (6월)49.1 → (7월)55.4
 - 단기사채(조원): ('26.5월)213.6 → (6월)223.0 → (7월)119.8
- 어음 부도액은 1,596억원으로 전월대비 감소, 부도율은 0.08%로 전월대비 0.24%p 감소
 - 어음 부도액(억원): ('26.5월)2,045 → (6월)7,675 → (7월)1,596
 - 어음 부도율(%): ('26.5월)0.10 → (6월)0.32 → (7월)0.08

| 그림 16 | 직접금융 조달실적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 그림 17 | 부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8월 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 말 대비 64.6원 하락한 1,376.5원을 기록

- 8월 원/달러 환율은 말일기준 전월대비 하락하였고 평균기준으로도 전월대비 하락
 - 원/달러 환율(말일기준, 원): ('26.6월)1,541.5 → (7월)1,441.1 → (8월)1,376.5
 - 원/달러 환율 변화율^[7](전월말 대비, %): ('26.6월)-2.3 → (7월)8.8 → (8월)4.0
 - 미 달러화 지수^[8](말일기준, 1973=100): ('26.6월)101.2 → (7월)99.9 → (8월)99.4
- 8월 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월대비 축소
 - 원/달러 환율 변동성^[9](%): ('26.6월)9.9 → (7월)10.7 → (8월)5.6

(원)

1,560
1,520
1,480
1,440
1,400
1,360
1,320

6.1 6.15 7.1 7.15 8.1 8.15

6월 평균: 1,527 7월 평균: 1,497 8월 평균: 1,406

The graph displays the index of the average monthly price of new house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61 to 1990, indexed to 1973=100. The index starts at approximately 99.2 in 1961, rises to a peak of about 101.5 in 1970, and then fluctuates between 99.5 and 101.0 until 1980. It then drops sharply to a low of about 98.8 in 1982, before recovering to approximately 99.8 by 1990.

Year	Index (1973=100)
1961	99.2
1965	99.8
1970	101.5
1975	100.8
1980	100.0
1982	98.8
1985	99.5
1990	99.8

(전월말일대비, %)

지표	'26.7월 중	'26.8월 중
GDP	-1.5	-0.3
제조업	0.5	0.5
서비스	-7.1	-2.4
건설업	-1.5	-0.3
투자	0.3	1.8
소비	2.1	2.2
정부	4.1	4.1
총합	4.1	4.1

응답	'26.7월 중 (%)	'26.8월 중 (%)
그림	3.3	4.1
강령	4.7	7.8
법령	0.9	1.5
지침	2.4	4.0
지침	4.6	5.6
지침	7.9	8.7
지침	12.1	17.8

자료: 한국은행, Haver,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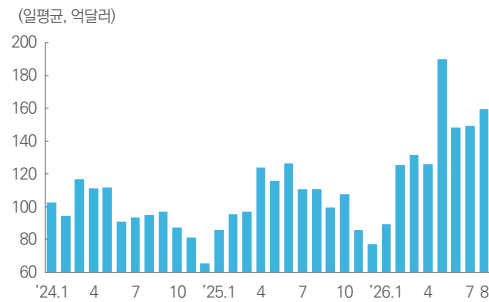
26

나. 외환거래

■ 8월 일평균 「원/달러 현물환 거래액」은 159.5억달러로 전월대비 증가

- 스왑레이트는 전월대비 25.6bp 상승
 - 원/달러 현물환 거래액(일평균, 억달러): ('26.6월)148.2 → (7월)149.5 → (8월)159.5
 - 스왑레이트^[10](3개월물 일평균, %): ('26.6월)-0.86 → (7월)-0.78 → (8월)-0.53

| 그림 22 | 원/달러 현물환 거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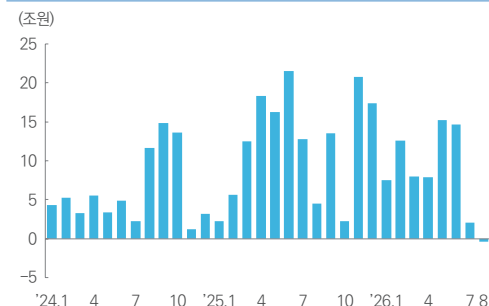
| 그림 23 | 스왑레이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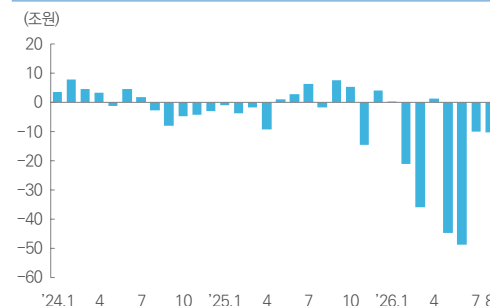
■ 8월 중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10.6조원 순유출

- 외국인 투자자는 채권과 주식을 각각 0.4조원, 10.2조원 순매도
 - 채권 순매수(전체, 조원): ('26.6월)14.7 → (7월)2.1 → (8월)-0.4
 - 주식 순매수(전체, 조원): ('26.6월)-48.4 → (7월)-9.9 → (8월)-10.2

| 그림 24 | 외국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 대금 추이



| 그림 25 |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수 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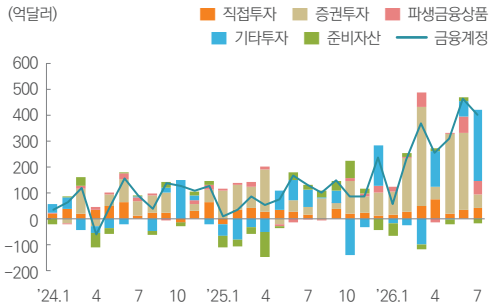


[10] 스왑레이트(swap rate)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으로 외화자금(달러자금)의 조달 비용(환헤지 비용)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스왑레이트의 상승은 환헤지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락은 비용의 증가를 의미).

■ 7월 「국제수지 금융계정」은 순자산이 403.2억달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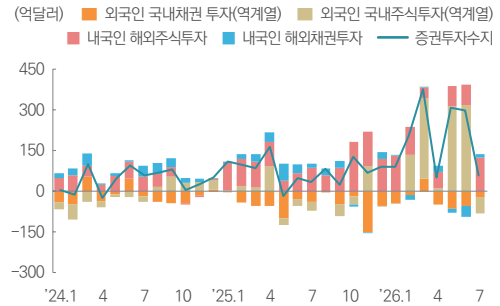
- 기타투자 등을 통해 외화자금 순유출
 - 직접투자 수지(억달러): ('26.5월)18.7 → (6월)33.8 → (7월)41.3
 - 증권투자 수지(억달러): ('26.5월)308.9 → (6월)298.8 → (7월)54.0
 - 기타투자 수지(억달러): ('26.5월)-1.9 → (6월)58.9 → (7월)275.6

| 그림 26 | 금융계정 순자산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27 | 증권투자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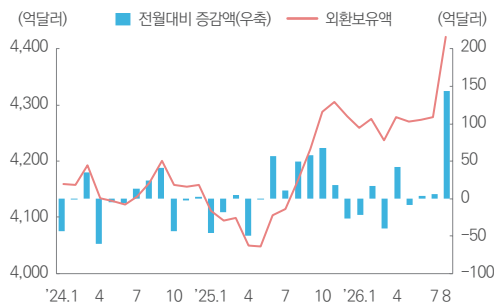
주: 내국인 해외투자는 자산(+)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부채(-)
자료: 한국은행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 차입여건

■ 8월 말 「외환보유액」은 4,422.8억달러

-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143.3억달러 증가
 - 외환보유액(기말기준, 억달러): ('26.6월)4,273.6 → (7월)4,279.5 → (8월)4,422.8
- CDS 프리미엄(국가 신용위험)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 CDS 프리미엄(5년물 기말기준, bp): ('26.6월)22.3 → (7월)22.8 → (8월)21.5

| 그림 28 |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29 |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III

해외경제 동향

■ 미국경제는 생산과 고용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 소폭 둔화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6.5월)0.0 → (6월)0.3 → (7월)0.2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6.6월)3.1 → (7월)2.1 → (8월)16.2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6.5월)4.2 → (6월)3.5 → (7월)3.4

■ 중국경제는 산업생산, 소비가 전월대비 증가율의 둔화, 투자의 감소폭은 확대되는 등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5월)4.5 → (6월)5.3 → (7월)4.5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6.5월)-0.6 → (6월)1.0 → (7월)0.6
- 고정자산투자(전년동월대비, %): ('26.5월)-4.1 → (6월)-5.1 → (7월)-6.7
- 제조업PMI: ('26.5월)50.0 → (6월)50.3 → (7월)49.2

■ 유로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일부 보이는 가운데 물가는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

- 산업생산(전월대비, %): ('26.4월)0.3 → (5월)0.3 → (6월)0.0
- 소매판매(전월대비, %): ('26.5월)0.3 → (6월)0.2 → (7월)-0.6
- 종합PMI: ('26.6월)50.0 → (7월)52.0 → (8월)52.0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6월)2.8 → (7월)2.9 → (8월)3.3

■ 일본경제는 소비가 개선되었으나 생산의 낮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

- 광공업생산(전월대비, %): ('26.5월)0.1 → (6월)2.0 → (7월)0.1
- 소매판매(전월대비, %): ('26.5월)1.7 → (6월)-3.9 → (7월)2.4
- 종합PMI: ('26.6월)52.8 → (7월)52.7 → (8월)53.5

주요국 경제 지표

(전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2Q	3Q	4Q	1Q	2Q	6월	7월	8월
생산	미국	-0.3	1.1	0.5	0.5	-0.3	0.3	1.0	0.3	0.2	-
	유로	-0.2	0.1	-0.5	-0.1	-0.7	-0.1	0.2	0.0		-
	일본	-3.0	0.1	-0.5	-1.0	0.2	2.5	0.3	2.0	0.1	-
소비	미국	3.2	2.7	2.5	3.5	2.4	1.5	2.9	0.2	-0.8	-
	유로	0.2	0.2	0.3	0.1	0.2	0.0	0.0	0.2	-0.6	-
	일본	2.3	1.7	0.1	-1.1	0.6	1.5	1.8	-3.9	2.4	-
물가	미국	2.9	2.6	2.4	2.9	2.7	2.7	3.9	3.5	3.4	-
	유로	2.4	2.1	2.0	2.1	2.1	2.1	2.6	2.8	2.9	3.3
	일본	2.7	3.2	3.4	2.9	2.7	1.4	1.5	1.5	1.7	-
국채 금리	미국	4.2	4.2	4.2	4.2	4.2	4.3	4.4	4.5	4.6	4.7
	유로	2.4	2.6	2.5	2.7	2.7	2.8	2.9	2.9	3.2	3.3
	일본	0.9	1.6	1.5	1.7	2.1	2.4	2.7	2.7	2.8	2.9

주: 1.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주요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이며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경제이슈 분석

IV

AI 투자 확대와 국내 설비투자 리스크 점검 :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문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이슈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AI 투자 확대와 국내 설비투자 리스크 점검 :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문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황소정 경제분석관(02-6788-4656)

CHAPTER

01 검토배경

■ 생성형 AI의 상용화^[1]이후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2]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유례없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5개사 합산 자본투자(CapEx)는 2023년 1,500억 달러에서 2026년 7,350억 달러로 추정되며 3년 만에 약 5배 가까이 확대
- 2026년 연간 자본지출 계획도 2025년 4분기 이후 세 차례의 실적발표마다 지속 상향 조정되고 있음

■ 우리 경제는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노출도가 세계 최고 수준

- 상장기업 설비투자에서 AI 관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한국 26%, 미국 23%로, 두 나라를 제외한 여타 경제(5% 미만)와 큰 격차^[3]
- 우리나라의 높은 집중도는 반도체 2개사에 집중된 결과로, 소수 기업의 투자 결정이 국가의 설비투자 규모를 좌우하는 구조

■ 이러한 연동 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2026년 상반기 전년대비 5.4%로 증가 전환하였고, 정부도 2026년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향후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

[1] ChatGPT 출시일 : 2022년 11월 30일

[2]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란 수십만 대 이상의 서버와 거대한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직접 구축·운영하며 전 세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 기업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이 있으며, 본고의 분석 대상도 5개사를 중심으로 함.

[3] Rishabh, K., & Shreeti, V. (2026). The geography of AI firms. BIS : PitchBook의 AI 관련 산업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3단계 별도의 스크리닝을 통하여 전 세계 AI 기업을 선별하였고, 32개 국가, 1,246개 기업을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함

- 다만 앞단의 글로벌 투자 사이클이 조정될 경우 동일한 경로로 하방 충격이 전달되므로, 하이퍼스케일러 자본투자 확대의 크기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

■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AI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설비투자를 비롯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함

- 첫째, 기술혁명 사이클의 관점에서 현재 AI 투자 국면을 규정(2장)
- 둘째,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투자 수준과 확대 동인 및 리스크 요인 검토(3장)
- 셋째, 하이퍼스케일러 경영진의 현재 상황 인식과 투자 리스크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기별 실적발표(어닝콜) 원문을 텍스트 분석(4장)
- 넷째, 우리나라 설비투자 현황과 전망 및 리스크 점검(5장)

02 AI 투자 국면의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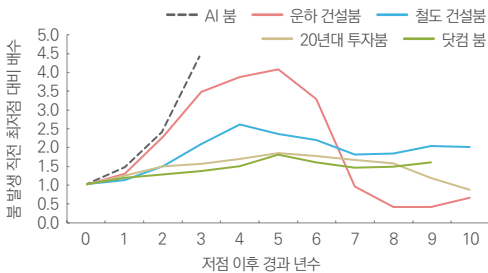
■ 글로벌 AI 관련 자본지출(CapEx)은 과거 주요 투자 붐과 비교해 빠른 속도로 확대

-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은 붐 시작(2023년) 3년 만에 저점 대비 약 5배로 증가하여, 미국의 운하 붐(1853년), 영국 철도 붐(1843년), 1920년대 호황(1921년), 닷컴 붐(1995년)이 도달한 정점 속도와 수준을 모두 상회^[4] (그림1)
- 스케일링 법칙(Scaling Law)^[5]에 따라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투입량이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관계가 지속되고,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가 멀티모달, 에이전틱, 퍼지컬 AI로 확대되면서 인프라 확보 경쟁이 지속

■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역사적으로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6] 전환기에 나타난 인프라 투자 사이클과 유사한 양상

- 철도는 거리 제약을 완화하고 운송비를 낮추었으며, 전기와 대량생산 체계는 공장의 생산 방식 자체를 재편하였고, PC와 인터넷은 사무·설계·회계 등 기업 내부 업무와 상거래·통신 등 시장 거래의 구조를 동시에 변화시켰음
- AI 산업은 추론·코딩·자동화 등 인지 노동(cognitive labor)의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대를 배경으로 초대형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진행 중

| 그림 1 | 역사적 경제 호황 시기의 투자 규모



자료: BIS

| 그림 2 | 버핏지수⁷⁾



주: 지수 = 비금융법인·외국계 상장분 제외된 미국 시가총액/ 명목 GDP
자료: FRED

[4] Rungcharoenkitkul, P. (2026). The AI investment race. BIS

[5] AI 모델의 지능은 훈련과 실행에 사용한 자원의 로그에 비례하여 향상되며, 일정 금액을 지출하면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스케일링 법칙이 매우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음 (샘 알트먼 블로그, "Three Observations", 2025.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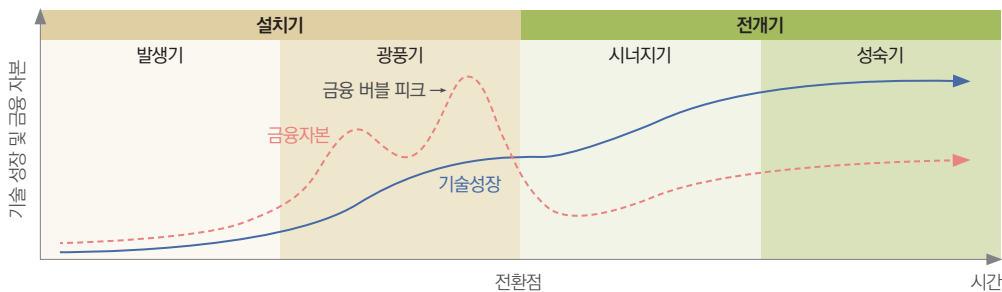
[6] 산업혁명(1771), 증기 및 철도시대(1829), 철강, 전력 및 중공업 시대(1875), 석유, 자동차 및 대량 생산 시대(1908), 정보 통신 기술 시대(1971)

[7] 버핏지수란 상장주식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값으로, 분자는 기존의 스톡과 기대치를 반영한 자산가치이며 분모는 실현치인 산출값. 지표가 높다는 의미는 현재 경제 규모 대비 시장이 미래 이익을 많이 선반영했다는 의미. 금융법인 모두를 포함한 버핏지수는 2026년 9월 기준 238%. (buffettindicator.org)

■ 이를 기술혁명 전개 과정으로 제시한 Perez(2002)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다섯 차례의 기술혁명은 모두 설치기(Installation)와 전개기(Deployment)의 두 국면을 거쳤으며, 양 국면 사이에는 금융 위기를 동반하는 전환점이 위치함^[8]

- 설치기는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단계로 발생기(Irruption)에서 광풍기(Frenzy)로 이어지며, 발생기에는 기술 혁신과 선구적 기업가가 등장하고, 광풍기에는 투기적 자본이 신기술 인프라에 집중 유입되어 과잉 구축과 자산가격 급등이 나타남
- 이 틀에 비추어 보면 현재 AI 산업은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급증과 AI 관련 기업 가치의 상승이 동반되고 있어 광풍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임
 - 광풍기에는 금융자본의 유입 속도가 기술의 실제 확산 속도를 상회하고 미래 기대가 자산가격에 선반영되는 반면(그림2), 실물 생산성 개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9] 양자의 괴리가 존재하는 특징(그림3)

| 그림 3 | 카를로타 페레즈 기술혁명 주기 및 전망



주: 개념을 도식화한 것으로 곡선의 높이와 기울기는 실제 수준이나 시점을 나타내지 않음
자료: Perez(200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편 AI 인프라 투자는 소수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투자 결정이 글로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

- AI 산업의 생태계는 하이퍼스케일러, 모델 개발사, 반도체 설계·제조 기업, 메모리 반도체 기업, 네트워크 장비 기업, 데이터센터·전력 공급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하이퍼스케일러가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는 상황
- 시가총액 기준 세계 상위 20개 AI 기업은 미국, 중국, 대만, 한국, 네덜란드에 몰려 있고, 각 기업은 시가총액, 설비투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키우는 동시에 공급망의 여러 층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10]
- 이에 따라 소수 기업의 투자 결정이 특정 국가의 설비투자와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8] Pérez, C.(2002) , Technological Revolutions and Financial Capital: The Dynamics of Bubbles and Golden Ages, Edward Elgar

[9] 샌프란시스코 연준(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이 발표하는 미국 기업 부문의 가동률을 조정한 총요소생산성(utilization-adjusted TFP)은 2026년 2분기 기준 직전 4분기 대비 0.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6.8.10.기준)

[10] Jon Frost, Vatsala Shreeti and Kumar Rishabh, "Global giants in the AI supply chain", BIS Bulletin No.122, 2026.02.23.

03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확대의 배경과 리스크 요인 점검

가.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추이와 투자 동인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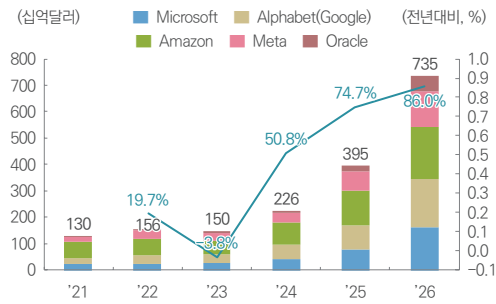
■ 하이퍼스케일러 5개사의 자본투자는 2023년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

- 5개사 합산 자본투자는 2021년 1,300억 달러에서 2023년 1,500억 달러로 완만한 증가에 그쳤으나, 2024년 2,260억 달러, 2025년 3,950억 달러, 2026년 7,350억 달러(추정)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전년대비 증가율은 2022년 19.7%에서 2023년 -3.8%로 일시 감소한 이후, 2024년 50.8% → 2025년 74.7% → 2026년 86.0%로 3년 연속 상승하며 증가세가 확대됨

■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11]의 자본투자 확대 속도가 영업현금흐름 증가 속도를 상회하면서, 창출된 현금 중 투자로 재투입되는 비중 또한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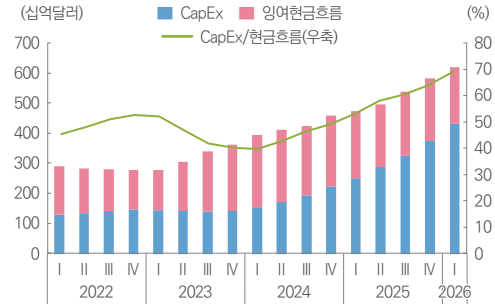
- 4개사 합산 영업현금흐름은 2024년 1분기 3,927억달러(4분기 이동합)에서 2026년 1분기 6,170억달러로 57.1%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자본투자는 1,531억달러에서 4,302억달러로 181.0% 증가
 - 영업현금흐름 대비 자본투자 비중은 2024년 1분기 39.0%에서 2026년 1분기 69.7%로 30.7%p 상승하여, 창출한 현금의 약 70%가 설비투자로 재투입되는 구조

| 그림 4 | 하이퍼스케일러 자본투자 추이



주: 2026년은 추정치
자료: Goldman Sachs (2026.6)

| 그림 5 | 하이퍼스케일러 현금흐름 추이



주: 아마존, 구글, MS, 메타 4개사 4분기 이동평균
자료: 각사 연결현금흐름 재무제표

[11] 회계연도 불일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오라클은 재무 분석에서 제외

■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의 공격적 자본투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일환

- 통상적으로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클수록^[12]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것(option to wait)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미룬다고 알려져 있음
- 그러나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기다리기보다 서둘러 크게 투자하는 편이 유리해짐
 - (비대칭 손실) 설비를 과도하게 지어 일부를 놀리게 되는 손실보다, 설비가 부족하여 수요를 놓치는 손실이 더 크다면, 기업은 과잉 투자하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됨^[13]
 - (경쟁적 선점) 경쟁 환경에서는 먼저 설비를 투자한 기업에 고객을 뺏길 수 있으므로, 앞다투어 투자에 나서는 균형(hurry equilibrium) 성립^[14]
- 하이퍼스케일러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대표적 영역^[15]
 - 설비 여력이 남으면 타 고객이나 용도로 재분배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완충이 가능하지만, 설비가 부족하면 고객 이탈로 직결되어 손실이 비가역적
 - 특히 AI 연산수요의 경우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환경에 정착하면 옮기기 어려운 고착(lock-in) 성격이 있어, 초기 선점 실패의 비용이 큼

■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동기와 더불어 수주잔고 역시 2025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향후 클라우드 수요에 대한 계약상 근거 또한 확대되고 있음(그림 6)

- 주요 4개사 합산 수주잔고는 2025년 2분기 6,120억 달러에서 2026년 2분기 2조 3,260억 달러로 3.8배 확대

■ 시장 전망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러 자본투자가 2030년까지 1조 4,95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그림 7)

- 5개사 합산 자본투자는 2026년 7,35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4,95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증가율은 2026년 86.0%에서 2030년 6.4%로, 전년대비 증가액도 3,4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축소되어 확대 속도는 점차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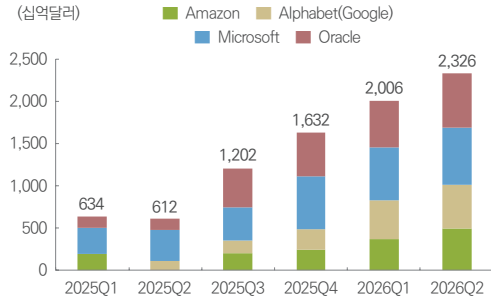
[12] 하이퍼스케일러 자본투자가 급등한 2025년의 미국 EPU(Economic Policy Uncertainty) 지수는 장기기준(1985-2009=100) 대비 3.7배, 코로나 시기인 2020년 평균(278.9)도 상회하며, 2025년 4월 536.9로 월별 최고치를 기록

[13] Ho, J. et al.(2017). Seeking Value Through Deviation? Economic Impacts of IT Overinvestment and Underinvestmen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8(4), 850-862. : 실증 분석결과, IT 부문의 과잉투자는 Tobin's q와 양(+)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과소투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4] Arasteh, A. (2016). Combination of real options and game-theoretic approach in investment analysis. Journal of Industrial Engineering International, 12(3), 361-375. : 경쟁사의 선투자로 대기 옵션의 가치가 소멸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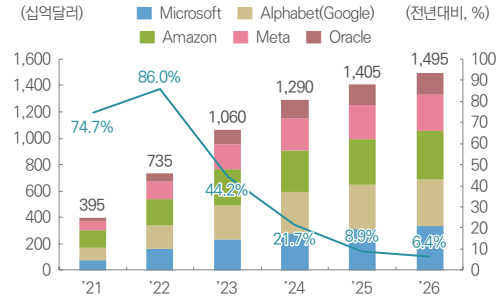
[15] Armbrust et al(2009). Above the clouds: A berkeley view of cloud computing. Technical Report UCB/EECS-2009-28, EECS Depart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 그림 6 | 하이퍼스케일러 수주잔고



주: Meta는 수주잔고 미공시
자료: 각사 IR 홈페이지 실적발표 스크립트

| 그림 7 | 하이퍼스케일러 자본투자 전망



주: 2025년은 실적, 2026~2030년은 전망
자료: Goldman Sachs (2026.6)

나. 하이퍼스케일러 재무구조 및 리스크요인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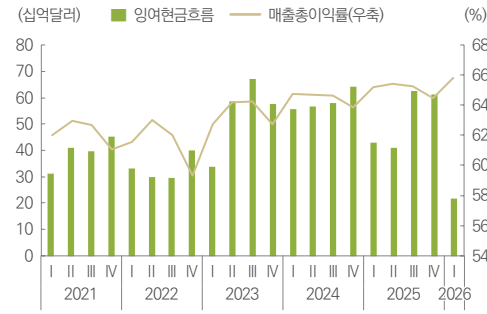
■ 하이퍼스케일러 자본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재무구조 측면에서 점검한 결과, 영업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현금흐름과 조달구조에서는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 (수익성) 4개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4년 1분기 57.8%에서 2026년 1분기 60.3%로 상승하여, 투자 확대에도 영업 수익성 자체는 견조한 상황(그림8)
- (현금흐름) 반면 잉여현금흐름(FCF)은 자본지출 확대로 축소되고 있으며, 2026 회계 연도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잉여현금흐름(FCF)이 축소된 상황에서 AI 관련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본지출 계획이 조정 또는 지연될 가능성^[16]
- (조달구조) 자체 현금으로 충당하던 투자 재원이 외부 조달로 이동하면서, 회사채 발행액과 사모신용 활용 비중이 빠르게 확대(그림 9)
 -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외부 조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책·금리 여건 변화^[17]에 대한 투자 결정의 민감도가 커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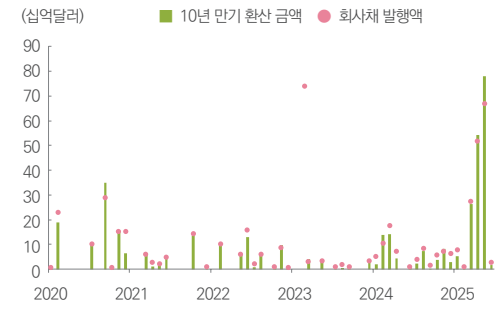
[16] S&P는 7월 9일 오라클의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면서 급증하는 자본 지출,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고객 집중도를 이유로 들었음. 그럼에도 하이퍼스케일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약 40%로 S&P 500의 약 80%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17] 2026년 9월 16일, 미국 FOMC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해 3.75~4.00% 구간으로 조정

| 그림 8 | 하이퍼스케일러 잉여현금흐름, 매출총이익률



주: 아마존, 구글, MS, 메타 4개사 합산 및 평균
자료: 각사 연결현금흐름 재무제표

| 그림 9 | AI 관련기업 회사채 발행액¹⁸⁾

자료: FRBD

■ 이 밖에 인프라 구축의 물리적 제약과 최종 수요의 불확실성도 투자 지속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병목요인) 전력망 연계 지연, 송전 용량 부족, 냉각 설비 요건, 인허가 절차, 전기 요금 상승 등이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제약
- (수요 불확실성) 다수 기업이 AI 도구를 시범 적용 단계에서 운영하고 있어, 본격적인 도입과 지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18]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How AI debt financing impacts duration supply and interest rates', 2026.2.10.

04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 텍스트로 본 기업의 리스크 인식 분석

가. 분석 배경

- 앞서 살펴본 하이퍼스케일러의 재무 지표는 투자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투자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업의 수요 전망(자본투자 계획)과 리스크 인식 등은 직접 관측되지 않음
 -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규모와 지속 여부는 경영진이 수요 지속성과 공급 제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좌우되나, 이러한 판단은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음
 - 반면, 분기별로 시행되는 실적발표를 보게 되면,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들을 토대로 기업의 인식 변화를 시계열로 관찰해 볼 수 있음^[19]
 - 이에 본고는 하이퍼스케일러 경영진의 AI 시장 인식과 위험 평가, 어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 실적발표문(어닝콜)을 텍스트 분석하고자 함

나. 분석 방법

- (자료 수집)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5개사의 2019년 1분기~2026년 2분기의 분기별 실적발표 회의록 총 150건을 수집
 - 실적발표는 발표문과 질의응답(Q&A) 세션을 분리하여 분석
 - 발표문은 준비된 메시지의 비중이 커 리스크가 선별될 수 있는 반면, Q&A는 애널리스트 질문에 대한 즉답으로 시장의 인식과 경영자의 실질 인식이 더 드러날 가능성
 - 기업의 실적발표 특성상 낙관적 어조(tone)로 치우칠 경향이 있으므로, Q&A 세션을 함께 봄으로써 낙관 편향을 점검

[19] Serdar et al(2026), "AI and Productivity: What Firms Are Saying on Earnings Calls," St. Louis Fed On the Economy

■ (산출 절차) 주요 리스크를 인플레이션, 공급망, 무역, AI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키워드를 설정한 뒤^[20],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수화^[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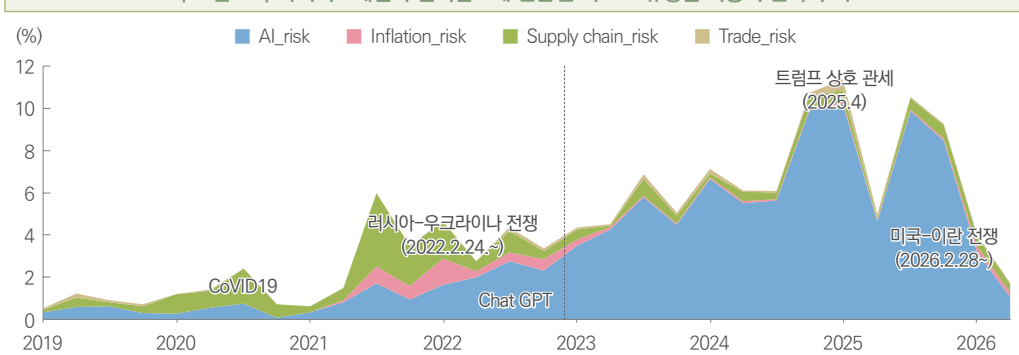
- (리스크 언급비중) 4개 유형별 언급비중과 이를 합산한 총 리스크 언급비중, 이 중 AI 리스크 언급비중은 AI 투자와 직접 관련된 위험 인식을 나타냄
- (AI 언급비중) 리스크 여부와 무관한 AI를 언급한 문장의 비중으로, 경영진의 AI 관련 논의 비중을 측정
- (AI 심리지수) AI를 언급한 문장을 대상으로 긍정/부정 어조(tone)을 판정하여, AI에 대한 심리를 측정

다. 분석 결과

■ 첫째, 리스크 유형별로 언급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실적발표에서 리스크 언급의 중심이 거시적 불확실성에서 AI 관련 리스크로 이동

- 2020~2022년에는 팬데믹에 기인한 공급망·인플레이션이 실적발표에서 리스크 논의를 주도하였으나, ChatGPT 출시(2022년 11월) 이후, AI가 리스크 논의의 중심축으로 이동 (그림10)
- AI 리스크는 2021년까지 1%에 머물다가 2022년 Chat GPT 출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 전체 발화 중 12% 비중을 차지

| 그림 10 |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에 언급된 리스크 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



자료: 각사 IR 페이지, 국회예산정책처

[20] Hassan et al(2025). Text as data in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9(3), 193-220. : 리스크 유형 및 단어 선정은 본 논문을 참고하여 설정

[21] 지수 산출의 자세한 내용은 [Box]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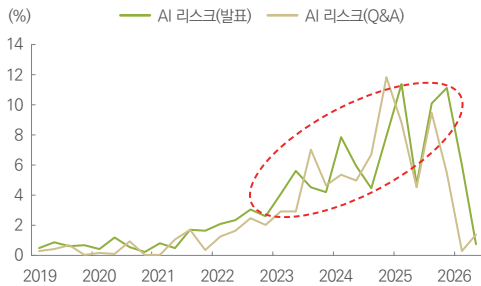
■ 둘째, AI 관련 리스크 언급 비중은 2023년 이후 지속 상승하는 모습이며, Q&A 세션의 리스크 언급비중이 발표 세션보다 한 분기 먼저 정점을 기록(그림11)

- 발표 세션에서 AI 리스크가 2023년 이후 지속 상승하여 2025년 1분기 최고점을 나타냈으나, Q&A 세션에서는 2024년 4분기에 최고점을 기록
- 애널리스트나 시장이 AI 투자 리스크에 대해 앞서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

■ 셋째, 2026년 들어 AI 리스크 언급비중은 크게 낮아졌으나, 전체 리스크 언급비중과, AI 자체의 언급 비중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그림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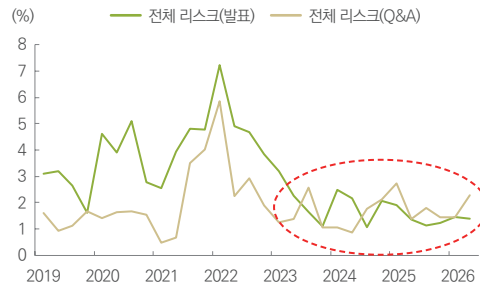
- 리스크 관련 발화의 총량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리스크를 논의하는 맥락에서 AI가 함께 언급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임
- 2023년 이후 하이퍼스케일러의 대규모 투자를 둘러싸고 AI 관련 불확실성이 주된 우려 요인으로 거론되었으나, 2026년 들어서는 그 논의의 비중이 줄어든 것임
 - 지금까지 이어온 급격한 투자 확대는 AI 발전 전망에 비해서 과소 투자 상황에 대한 우려였다면, 2026년 들어서는 과잉 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행한 측면

| 그림 11 |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 AI 리스크 언급비중



자료: 각사 IR 페이지,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12 |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 전체 리스크 언급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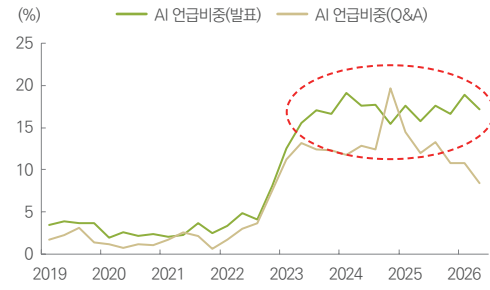


자료: 각사 IR 페이지, 국회예산정책처

■ 넷째, AI 차제에 대한 언급비중은 높고(그림13), AI 심리지수도 전 기간에 걸쳐 양(+)의 값 유지(그림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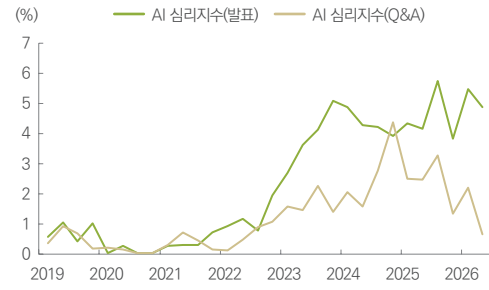
- 발표문 기준 심리지수는 2025년 3분기 5.80, 2026년 2분기 4.9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심리지수는 2023년 이후 발표문, Q&A 세션 모두 상승하였으나, 발표문이 Q&A를 대체로 상회하며 둘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
 - 사전에 준비된 발표문에는 경영진의 낙관적 시각이 더 강하게 반영되고, 질의응답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평가가 나타남

| 그림 13 |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 AI 언급비중



자료:각사 IR 페이지,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14 |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 AI 심리지수



자료:각사 IR 페이지, 국회예산정책처

■ 다섯째, AI 리스크와 언급비중, 심리지수 모두 최근 들어 하향하는 모습을 보임

- 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설비투자 규모에 비해 수익화 경로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AI 투자 피로감’이 거론되기도 함^[22]
- 이러한 분위기 속에 경영진은 실적발표에서 AI를 별도로 부각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성과 위주로 설명하면서, AI 관련 발언의 빈도와 어조가 함께 낮아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기업의 실적발표를 통해서만 제시되는 향후 자본투자 계획(가이드스)을 살펴보면, 2026년 자본투자 계획이 연중 지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2분기 상향의 공통 사유로 부품가격 상승이 제시됨

- AI 서버 수요 확대가 메모리 공급능력을 상회하면서 부품가격이 상승하였고, 이것이 다시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투자 계획을 상향시키는 순환 구조가 형성된 상황
 - (마이크로소프트) 2026년 자본투자 1,900억 달러 중 약 250억 달러(13%)를 부품가격 영향으로 제시
 - (아마존) 메모리 가격 상승(the higher cost of memory)을 사유로 200억 달러 상향
 - (메타) 부품가격 상승(higher component pricing)을 사유로 100억 달러 상향

[22] HedgeCo.net, ‘AI Capex Fatigue: Why hedge funds are questioning the hyperscaler spending boom’, (2026.5.28.)

| 표 1 | 2026년 연간 자본투자 지출 계획의 조정

(단위: 십억 달러)

	2025Q4	2026Q1	2026Q2	증가율 ¹⁾	가이드스 상향 원인
아마존	200	200	220	+10%	메모리 가격 상승 반영
구글	175~185	180~190	195~205	+11.1%	Intersect 인수 수요 대응
메타	115~135	125~145	130~145	+10%	메모리 가격 상승 반영 하단 축소
MS	미제시	190	175 (190)	불변	회계 재분류
합계 ²⁾	-	710	747.5		-

주: 1) 2025년Q4 대비 2026Q2 중간값 증가율

2) 각 사 가이드스의 중간값 합계

자료: 각 사 홈페이지

■ (총평)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를 텍스트 분석한 결과, AI에 논의가 집중된 가운데 리스크와 낙관적 심리가 함께 높은 수준을 보여, AI에 관한 낙관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모습

- 다만 최근에는 AI 언급비중, 리스크, 심리지수가 모두 내려가며, AI 관련 논의의 강도가 다소 약화되는 흐름이 나타남
- 한편 투자 축소를 의미하는 발언은 관찰되지 않아, 이러한 흐름은 AI 투자의 위축 신호라기 보다 과열되었던 투자 논의가 수익성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05 국내 설비투자의 반등과 장기 경로 상향 가능성

가. 글로벌 AI 투자의 국내 설비투자 파급 경로

■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지속 전망은 국내 반도체의 증설 수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설비투자에 직접적 함의를 지님

- AI 투자 사이클은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출발하여 반도체 제조업체와 장비 부문으로 순차 파급되는 구조를 지니며, 수주잔고 확대 → 자본투자 집행 → 장비 발주 → 생산능력 확충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전달됨

■ 실제로 2026년 들어 우리나라 설비투자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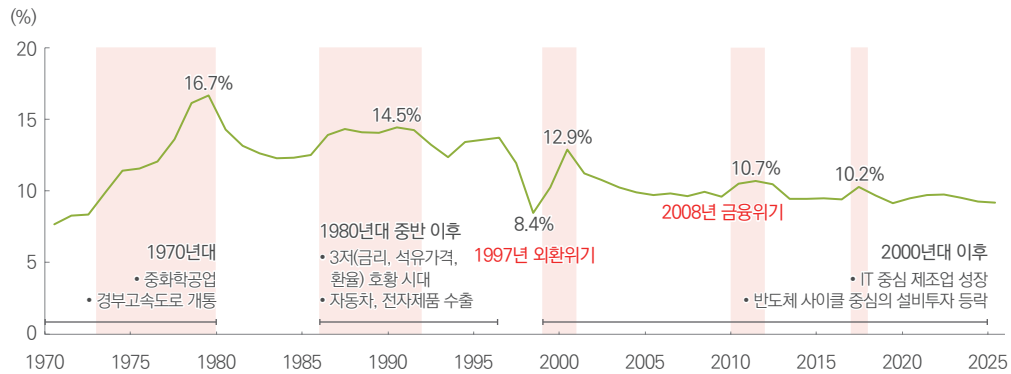
- 2026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4%, 2분기 6.3% 증가하여 상반기 5.4%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설비투자지수는 6월, 7월 각각 22.5%, 21.7% 증가

나. 설비투자의 장기 경로 상향 가능성

■ 국내총생산(GDP)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1979년 16.7%를 정점으로 장기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9%대에 머물러 있음(그림 15)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에 16.7%까지 상승한 이후,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기(금리·유가·환율)에 14.5%로 재상승
- 1997년 외환위기 시기 8.4%까지 급락, 2000년 IT 투자 국면에서 12.9%까지 반등한 이후 10% 내외로 고착화

| 그림 15 |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 추이



주: 1. 명목 기준
2. 음영은 비중 10% 이상 상승 시기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2026년 6월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23]에서 반도체 2개사가 제시한 반도체 투자계획은 총 3,206조원으로 국내 투자계획 발표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이며,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설비투자의 장기 경로를 상향 이동시킬 수 있는 수준

- 삼성전자 2,106조원(~2040년), SK 하이닉스 1,100조원(~2033년)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2,250조원(70.2%), 호남권 800조원(24.9%), 충청권 156조원(4.9%)

| 표 2 |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규모 및 내용

기업	투자규모	지역별 규모	내용
삼성전자 (~2040년)	2,106조원	호남권 400조원	(광주) Fab 2개 신설
		충청권 56조원	(천안) HBM 5개 라인 (온양) HBM 신축
		수도권 1,650조원	(평택) P5 완공 (용인) DRAM 확대
SK 하이닉스 (~2033년?)	1,100조원	호남권 400조원	(광주) Fab 2개 신설
		충청권 100조원	(청주) M17 NAND 80조원, 29년하 (청주) PKG 20조원, 27년하
		수도권 600조원	(용인) 용인클러스터, ~33년

[23]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거시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며, AI를 생산혁명으로 규정하고, AI 생산 확대가 유동성과 부동산, 환율, 재정 문제까지 동시에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문법,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이후 가장 담대한 산업정책”이라고 평가

■ 다만 위 계획은 발표 단계로 실현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토지 보상·인허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 지연 등 계획 기간 내 집행에는 불확실성이 존재

- 다년간의 총액 계획인 만큼 집행 시기와 규모는 반도체 업황, 각 사의 재무 여력, 기반시설 조성 속도에 따라 충분히 조정될 가능성
- 이에 따라 설비투자 경로 상향 효과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다.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 확대와 집중 리스크

■ 설비투자의 장기 경로 상향이 반도체 부문에 의해 주도될 경우, 투자와 성장의 업종 집중이 심화되어 반도체 경기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의 노출도가 커질 수 있음

- 반도체 투자는 메모리 가격과 재고 등 업황에 따라 확장과 축소가 크게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비중이 커질수록 설비투자 전체의 변동성도 확대
- 또한 반도체 업황은 수출과 설비투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업황 둔화 시 두 경로를 통해 성장률 하방 압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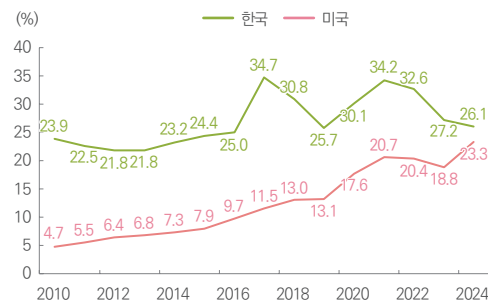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자본투자에 있어 AI 관련 기업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그림 16)

- 이러한 높은 집중도는 상장기업 설비투자 자체가 반도체 기업 2개사에 집중된 결과
- 미국은 2010년 4.7%에서 2024년 23.3%로 15년간 약 5배 상승하였고,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한 시점인 2024년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 제조업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컴퓨터·전자 단일 업종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비전자 제조업의 기여도는 사실상 소멸됨 (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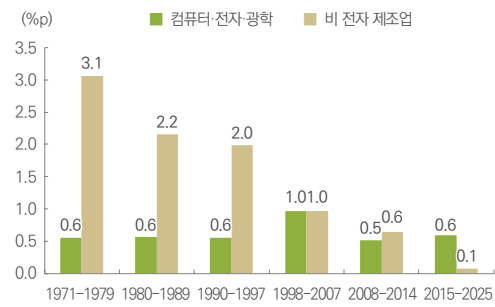
- 컴퓨터·전자 업종의 평균 성장기여도는 1971년 이후 0.5~1.0%p 범위에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전자 제조업은 3.1%p에서 0.1%p로 축소

| 그림 16 | 자본투자 AI 기업 집중도 추이



자료: BIS

| 그림 16 | 제조업 부문별/연도별 평균 성장기여도



주: 3년 이동평균 적용

자료: 한국은행

06 요약 및 시사점

■ AI 투자붐으로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자본투자가 급격히 확대

- 하이퍼스케일러 5개사 합산 자본투자는 2023년 1,500억 달러에서 2026년 7,350억 달러로 3년 만에 약 5배 확대
- 다만 하이퍼스케일러의 잉여현금흐름 축소와 회사채·사모신용 의존 상승은 수요 둔화 시 투자 계획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하이퍼스케일러 리스크 인식과 투자 의도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선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5개사의 실적발표문을 텍스트 분석

- 2023년~2025년 리스크 논의의 축은 거시 불확실성에서 AI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이동하였으나, 2026년 들어서는 AI를 리스크 언어로 서술하는 비중이 급락
- AI에 대한 기업 심리지수는 전 기간 긍정 수준을 유지하였고, 투자 축소를 시사하는 발화 전환도 확인되지 않음
- 실적발표에서 제시된 2026년 자본투자 계획 역시 3분기 연속 상향 조정되어, 텍스트에서 읽히는 기업의 투자 의지와 계획(가이드라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킴

■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 사이클에 연동하여 2026년 들어 우리나라는 반도체 2개사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본격 시작되는 모습

- 설비투자는 2026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4.4%, 2분기 6.3% 증가하여 상반기 5.4% 증가
- 국내총생산 대비 설비투자의 비중(명목 기준)은 1979년 16.7%를 정점으로 장기 하락하여 최근 9%대에 머물러 있으나,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경우 장기 경로가 상향 이동할 가능성

■ 다만 높은 AI 노출도는 확대 국면에서는 성장 동력이나, 조정 국면에서는 동일한 경로로 하방 충격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조정 국면에 대비해 집중 위험을 완충할 필요

- (투자 확대 국면의 여건 조성) 대규모 투자 계획이 일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인허가 절차를 점검
- (집중 위험 완충) 비전자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축소된 만큼, 반도체 이외 부분의 투자 기반을 유지하여 설비투자의 업종 편중을 완화할 필요
- (조기 신호 포착) AI 투자를 주도하는 하이퍼스케일러 및 빅테크 회사의 투자계획 및 재무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자 사이클의 전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필요

[BOX] 실적발표문 텍스트 지수의 산출 방법 및 키워드

■ 텍스트 지수의 정의 및 산출 방법

		지수의 정의	산출 방법
리스크	인플레이션	주제와 관련한 불확실·우려 논의의 비중	주제 문장 가운데 리스크 키워드가 있거나, 같은 발화 블록에 리스크가 있는 문장 ÷ 전체 문장 × 100
	공급망		
	무역		
	AI		
AI 언급비중		리스크 여부와 무관하게 실적발표에서 AI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를 나타냄	AI 주제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 전체 문장 × 100
	AI 심리지수	AI 언급 문장 대상으로 낙관적 vs 우려적 톤의 순 방향	AI 주제 문장 중(긍정-부정) ÷ 전체 문장 × 100

■ 키워드 사전(lexicon)

AI		AI, A.I.,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generative AI, GenAI, ChatGPT, chat gpt, LLM, large language model foundation model, foundation models, inference, GPU, HBM, data center, capex
리스크	Hassan et al. (2026)	risk, risks, risky, uncertainty, uncertain, volatility, volatile, unclear, unpredictable
	병목 요인	constraint, bottleneck, shortage, limitation, headwind
	지정학적 이슈	war, conflict, invasion, military action, geopolitical tension, geopolitical risk, ukraine, russia, iran, hormuz, strait of hormuz, oil supply, oil price, crude oil, crude prices, energy supply, supply disruption, supply disruptions, energy security
긍정		good, strong, great, positive, opportunity, benefit, improve, growth, grow, increase, optimistic, tailwind, accelerate
부정		loss, decline, difficult, negative, weak, weaker, headwind, concern, pressure, challenging, decrease, slowdown, cut, delay, lower margins, heavy investment
인플레이션		inflation, deflation, price increase, rising prices, higher prices, consumer prices, CPI, PCE
공급망		supply chain, supplier, logistics, shipping, freight, fulfillment, inventory, procurement, distribution network, lead time, backlog
무역		trade, trade war, tariff, export, import, sanction, geopolitical, antitrust regulatory scrutiny

nabO Economy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26년 9월호 통권 제143호

발행일 2026년 9월 23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